Weekly

공감

더 큰 대한민국

No.64
2010.06.16
gonggam.korea.kr

나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월드컵 건강하게 즐기기
G20 체제와 한국의 미래전략
학교를 '절대안전구역'으로

6·25전쟁 60주년 기념 사진전 '경계에서'에 전시될 사진작가 구본창의 작품 '철모'.

보건복지부

한국아동복지협회




'디딤씨앗통장' 홍보대사 오상진

아나운서
오상진의 '긴급제안'

아이들이 저축하면
국가가 추가로 적립 하여 주는 **환상의 짝꿍!**

바로 **디딤씨앗통장** 입니다.



디딤씨앗통장 은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에서도 같은 금액을 적립해 줌으로써 아동이 준비된 사회인으로 성장 ·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아동자립 프로젝트 입니다.

- 현재 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정, 그룹홈, 장애인시설아동이 가입대상이며 점차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 후원금은 학자금, 주거마련,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 등 사회자립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후원신청 및 문의 | 한국아동복지협회 디딤씨앗통장사업부 (02)790-0786,7 또는 www.adongcda.or.kr

아동발달지원계좌 디딤씨앗통장

* '디딤씨앗통장' 은 아동발달지원계좌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호국용사 위상 바로 세워 '더 큰 대한민국' 만들어야



김 양
국가보훈처장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하는 일은 중요하다. 그분들께 감사하는 일은 더욱 중요하다. 또 그분들이 나라가 어려울 때 행동으로 보여준 나라사랑 정신을 잇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랄 만큼 중요하다.

나라를 위한 희생에 대한 기억과 감사, 계승은 국가 존립과 발전의 근본이다. 선진국일수록 기억, 감사, 계승에 높은 가치를 두고 나라를 위한 공헌이나 희생에 대한 예우에 소홀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나라 위한 희생을 기억하는 곳에서 나라사랑 정신이 싹튼다.

지난날 우리 선열들은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켜냈다. 그리고 그렇게 지켜낸 나라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당당한 나라로 발전한 것은 우리가 그 희생을 기억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 희생을 기억하지 않았다면 우리 역사는 지난 세기 외세의 침탈을 당하고 6·25전쟁이라는 민족적 비극을 겪은 패배의 역사로만 남았을 것이다.

우리는 외세의 침탈과 6·25전쟁이라는 민족적 비극을 겪었음에도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뤄내는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냈다. 지금 세계 속의 대한민국의 위상은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이 세대를 넘어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을 위한 정신적 기반으로 굳건히 자리 잡고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보훈은 이러한 나라사랑 정신을 싹틔우는 기반을 다지는 영역이다. 나라를 위한 삶을 살다가신 분들과 그 유가족을 예우하고 보상함으로써 공익을 위한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 사회가 인식토록 하는 것이 국가보훈이다.

단순한 물질적 보상을 뛰어넘어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자신을 버린 애국선열의 공훈을 되새기고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실천하며, 후손에게 이를 정신적 유산으로 물려주는 일은 우리 국민 전체의 몫이다. 그러므로 나라사랑 정신은 과거의 유물이 아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남북전쟁을 겪으며 "나라를 위해 싸웠던 용감한 사람들이 헛되이 죽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살아 있는 사람들이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 6·25전쟁의 발발 연도를 모르는 사람이 33퍼센트나 된다. 특히 20대는 절반 가까이 잘못 알고 있거나 아예 모른다고 한다. 60년 전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싸웠던 분들이 잊히고 있다. 그들을 잊는다는 것은 그들이 헛되이 죽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6·25전쟁 60주년 기념사업이 우리의 기억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최근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많은 장병들이 희생됐다. 이를 계기로 나라를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우리는 이들의 희생을 영원히 잊어서는 안 된다. 이어나가야 한다. 그것이 살아 있는 사람들의 의무다. G

Weekly
2010.06.16
No.64(통권 165호)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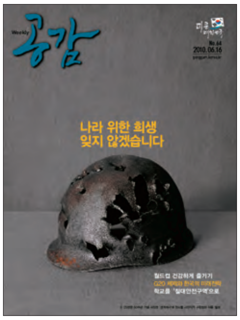


표 지 이 야 기

한일 강제병합 1백 주년,
안중근 의사 순국 1백 주년,
6·25전쟁 60주년,
4·19혁명 50주년,
5·18 민주화운동 30주년.
해마다 맞는 호국보훈의 달
6월이지만, 올해는 그 의미가
더욱 가슴에 와닿는다.
제2연평해전도 꼭 8년 전
이맘 때 일어났고,
천안함 46용사 묘역엔
아직 풀도 채 돋아나지 않았다.
옷깃 여미고 숨결 고르고
마음 다잡는 계기가 되기를.







Weekly 공감
http://gonggam.korea.kr

발행일 2010.06.16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유인촌
제작협력 동아E&D
인쇄제본 삼화인쇄(주)
문의 02-3704-9668
정기구독 02-2625-3294

알림 이 책을 펼치면 오른쪽
윗부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 바코드가 인쇄돼 있습니다.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mcst.go.kr

기 획 특 집

나라 위한 희생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존귀한 생명 나라 위한 촛불로 사르고 영겁의 별 되신 님이시여
이 터전에 울리는 겨레의 찬미 들으소서
님의 거룩한 충절 길이 후손에 전하고자 이 성전을 바칩니다

사슴처럼 눈이 맑은 소녀도 볼우물에 수줍음 고이던
고운 아내도 새벽마다 정한수로 기원하시던 어머니의 주름진
눈물마저도 차마 잊기로 하고 싸우신 순국의 절개
여기 살아 숨쉽니다

역사의 소명 따라 꽃답게 바친 목숨은 민족혼으로 피어났습니다
이제 이 산하에 흐르는 구름 강물 새 한 마리 들꽃 한송이까지도
님을 예찬하리니 그 크신 공훈 조국의 영광 위에 영원토록
누리소서

유희남 시인의 〈님 이시여〉



01 **Reader & Leader** 김양 국가보훈처장
22 **총론** "국가 위해 헌신한 분들 끝까지 책임진다"
26 일제에 항거한 독립운동가 재조명
28 6·25 국군·유엔군 참전용사 이야기
32 6·25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 10년… 3,367구 '가족 품으로'
34 **인터뷰** 윤병국 대한학도의병동지회장
"평화는 누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지켜야 한다"
36 6·25전쟁 60주년 기념 사진전 '경계에서'
38 유엔 21개국 해외 참전용사 찍는 사진작가 이병용
40 제2연평해전 유가족들의 이야기
44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첫 현충일 풍경
48 '殺身成人' 전시·평시가 따로 없다
50 순국용사 희생정신 기리는 사회… 美 해병박물관을 가다

04 **공감 라운지** 6·25전쟁 60주년 이벤트 'ON 세상에, 대한민국'
08 **2010 남아공월드컵** 아르헨티나 넘고… 가자 16강으로!
10 물 많이 마시고 편한 마음으로 보세요
12 **포커스** '세계전략포럼 2010' 한국 미래전략 논의
14 **역사의 窓** 6·10 민주항쟁 23주년 기념식 개최
16 **이슈** 우리 아이들 24시간 보호한다
18 **환경 뉴스** 대한민국, 국제 환경 중심국 도약

52 **사진 뉴스** 창경궁 내의원 '체험하는 전통 한의학' 문전성시
54 **특별 기고** 풍수학자 최창조 교수가 본 4대강
"4대강살리기는 중태 빠진 어머니 치료하는 것"
56 **우리 강 따라 걷기** 섬진강
58 **생활 공감** 자전거 전용 주차장으로 도난·분실 걱정 끝!
60 **프로야구 뒷이야기** 장성호, 왜 기아와 결별했나
62 **명사가 읽는 책** 〈책으로 크는 아이들〉
63 **공감 카툰** 파랑새를 찾아서
64 **문화 공감** 오페라 〈아이다〉

Weekly 공감 편집실(gonggam@korea.kr)과
홈페이지(gonggam.korea.kr),
대한민국 정책포털 공감 코리아(www.korea.kr),
정책공감(blog.daum.net/hellopolicy),
청와대(www.president.go.kr) 등에
올라온 독자의 편지와 댓글입니다.

〈Weekly 공감〉 63호(6월 2/9일자) 기획특집 '학교·학생·교사 행복 트라이앵글'과 관련해 많은 독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내용을 소개합니다.

개성·소질 개발하는 창의적 교육 확대됐으면

"'다양한 교육이 창의인재 만든다' 기사를 읽고 획일화되고 단편화된 교육시스템에서는 결코 창의적인 아이들이 자라지 않는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학교들은 대학입시나 취업 준비에만 열중하지 말고 아이들의 개성과 소질을 개발하는 창의적인 교육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교육개혁의 선두주자로 자율고, 마이스터고, 기숙형고 등이 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학생들이 톡톡히 누렸으면 합니다."_민선욱

"'수업 전념하게 행정업무 확 줄인다' 기사를 읽으면서 이번만큼은 꼭 교사들의 잡무가 확 줄어들어 수업과 학생지도에 전념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학교 포털사이트를 개설해 통계 공문 입력의 수고를 덜고 인턴, 순회교사 등을 배치해 수업과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등 교사의 고충을 더는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시행됐으면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아이들의 학력 향상과 인성교육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_김기현

"학교 단위 책임경영제로 달라진 초중고등학교의 사례를 접하니 교장 공모제가 학교 운영 발전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피부로 느껴집니다. 2007년부터 실시된 교장 공모제가 여러 가지 의견차로 말도 많지만 그 학교만의 차별화된 경영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점에서 하루빨리 정착됐으면 합니다."_경인혜

63호 과학뉴스 '세계사이언스파크 총회 대전서 열려'를 읽고 독자가 보내온 의견입니다.

"요즘 전 세계가 녹색성장 시대를 맞아 다양한 대책과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대전에서 세계 57개국의 1천2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의 사이언스파크 총회를 개최했다는 것은 우리의 국력과 위상, 녹색성장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크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각 국가들이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글로벌 녹색성장을 이뤄내야 할 것입니다."_우도형

63호 '보수와 진보가 함께하는 토론회'를 읽고 독자가 올린 의견입니다.

"우리 사회는 지나치게 이념과 사상의 대립과 갈등으로 과열돼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보수와 진보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역지사지의 처지에서 토론의 장을 열었다는 사실이 반갑습니다.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일수록 다양한 의견이 충돌하고 수용하면서 발전해간다고 생각합니다. 이 토론회를 계기로 우리나라가 서로 화합하고 상생하는 길로 들어서는 밑거름이 됐으면 합니다."_woohh0419





알립니다

대한민국의 '스티브 잡스'를 찾습니다



'시사경제용어사전' '실시간 산불현장 대응시스템' '식품안심장보기…'. 스마트폰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응용프로그램)들이다. 스마트폰 앱은 필요한 지식을 언제 어디서나 알려주는 '21세기 정보통'.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안전부, 경기도는 더 많은 공공 정보와 민간 정보가 앱을 통해 확산될 수 있도록 '제1회 대한민국 앱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 기간 | 9월 10일까지
공모 부문 | 앱 개발 및 앱 기획 분야
참가 방법 | 앱 공모전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공 정보(2백여 종)와 민간 DB(40여 종) 중 1개 이상 활용해 앱 또는 기획서를 홈페이지로 제출
참가 자격 | 학생, 일반인, 팀 ※ 2명 이상 팀 구성 가능(단, 기업 단위 참가 불가)
시상 내역 | 개발 분야–대상 3편 및 최우수상 2편, 기획 분야–대상 1편, 최우수상 2편 등 총 25편
시상 일정 및 장소 | 10월 28일(목)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에메랄드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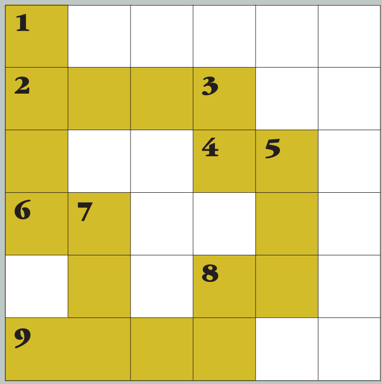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콘텐츠산업과 Tel **02-3704-9695**
제1회 대한민국 앱 공모전 홈페이지 koreaapps.or.kr

6·25전쟁 60주년 온라인 이벤트 'ON 세상에,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비롯한 21개국 참전용사들의 평화수호의 뜻을 기리기 위해 'ON 세상에, 대한민국' 홈페이지를 열고 3가지 이벤트를 실시한다. 먼저 'ON 세상에 무궁화꽃이 활짝 피었습니다!'는 참전용사에 대해 감사와 평화를 기원하는 이벤트. 참전용사에게 추모의 글을 남기면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수많은 무궁화가 피어나게 된다. 블로그나 트위터 등 온라인상에 태극기를 달 수 있는 'ON 세상에 태극기 휘날리며!'와 6·25전쟁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6·25 시간여행'도 마련됐다. 6·25전쟁 기념사업위원회와 함께 만든 이 이벤트는 6월 25일까지 참여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뉴미디어홍보과 Tel **02-3704-9648**
'ON 세상에, 대한민국' 홈페이지 koreanwar60event.korea.kr

공감♥퍼즐



빈칸의 답을 연락처와 함께 6월 23일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가 로

2. 여러 번 되풀이하여 간곡히 하는 부탁.
4. 어떤 대상이나 목적을 위해 목숨을 바침. "조국을 구하기 위해 수류탄을 들고 OO한 무명용사들이여!"
6. 상반신은 사람과 같고 하반신은 물고기와 같다는 상상의 바다 동물.
8. 열 또는 전기가 물체 속을 이동하는 일. 또는 그런 현상. 열OO, 전기 OO
9. 전쟁에 참가하여 싸운 용사.

세 로

1. 자기의 몸을 희생하여 인(仁)을 이룸. 〈논어〉 '위령공편(衛靈公篇)'에 나오는 말이죠. "OOOO의 구국정신."
3. 국제무역항, 영도다리, 자갈치시장, 누리마루, 해운대….
5. 신라 때 화랑이 지켜야 했던 도리. 유(儒)·불(佛)·선(仙)의 삼교(三敎), 삼덕(三德), 오계(五戒)를 신조로 했죠.
7. 생선, 김, 미역 등의 어물을 전문적으로 파는 가게.
8. 전쟁터에서 적과 싸우다 죽음.

〈Weekly 공감〉 62호(5월 26일자) '공감퍼즐' 정답
가로 1 교사 4 눈높이 5 미소 7 수거 8 담금질
세로 2 사나이 3 지방선거 4 눈썰미 6 소담 7 수질

〈Weekly 공감〉 62호 '공감퍼즐' 당첨자
신계영 · 서울 강동구 성내1동
신문수 · 강원 원주시 학성동
이세미 · 서울 관악구 봉천4동
정민선 · 경남 진주시 상봉서동
최소연 · 전북 군산시 나운동

국격, 이제부터 거침없이 하이킥!

박해미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홍보대사

올해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나라의 품격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활발하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홍보대사가 하는 일이 국가 품격 향상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싶겠지만 분명 상관이 있다. 약자를 배려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돌봐주는 따뜻한 사회 분위기가 조성돼야 나라의 품격이 높아지고,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바로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홍보대사로서 내가 할 일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일러스트 · 김영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홍보대사가 된 이후 TV나 신문 등에서 '소비자 피해'라는 말이 나오면 한 번 더 읽어보게 된다. 최근 가장 가슴 아팠던 기사는 상조업체들로부터 피해를 본 이웃들의 이야기였다. 피해 사례는 다양했다. 어떤 상조회사는 반신불수로 누워 있는 남편의 죽음에 대비하기 위해 어려운 형편에도 3년 동안 상조금을 납부한 회원이 계약 해지를 요청하자 "계약을 해지하면 단 한 푼도 돌려줄 수 없다"고 버텼다고 한다. 또 어떤 회사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슬픔에 잠긴 상주에게 더 좋은 수의, 더 좋은 관, 더 좋은 리무진을 쓰라며 반강제로 돈을 요구한 일도 있었다. 이를 거절하면 많은 조문객 앞에서 불효자라고 망신을 주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상조 서비스 가입자는 가족이 사망해도 장례를 치를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 본인이 사망해도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있어도 사는 것이 힘들어서 장례를 치를 여력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더구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상조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상조 민원은 2007년에 8백33건이었는데 2008년에는 1천3백74건, 지난해에는 2천4백46건으로 연평균 85퍼센트씩 늘고 있다.

다행히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 관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할부거래법을 개정했다. 이제 상조업을 하려면 3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고, 상조업체는 소비자에게 받은 돈의 50퍼센트를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지급보증, 공제 등에 가입해야 한다. 또 소비자도 상조 서비스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밖에도 상조회사가 재무정보를 포함한 기업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과대·허위광고와 기만적인 영업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시켰다.

이런 내용들을 담은 새 할부거래법이 올해 9월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어서 9월이 오면 좋겠다.상조 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사람이나 이미 가입한 사람은 이것만은 꼭 기억하자. 상조회사가 사전에 약속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태도를 보일 경우에는 '1372'로 연락하면 해결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와 소비자 홍보대사 박해미가 항상 여러분 곁에 있다.

글 · 박해미(배우)

공감 마당

1. 가장 관심 있게 읽은 기사와 그 이유
2. 지난주 기획특집에 대한 의견
3. 〈Weekly 공감〉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

유재범 서울 관악구 봉천6동

1. '출산·육아 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뱅크 확대' 기사를 관심 있게 읽었습니다. 대체인력을 신속히 투입해 인력 공백을 해소하고 아울러 직장인의 출산과 휴가에 대한 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여기에 미취업자들이 경력과 현업 실무능력을 쌓을 수 있는 일거양득의 좋은 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2. 이번 기획특집 기사들을 통해 우리나라 교육정책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사 첫머리에 나온 내용처럼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틀에 얽매인 교육은 유익하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육 역시 이 점에 착안해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 행복한 교육현장을 일궈나갈 수 있도록 계속 격려하고 지켜보겠습니다.
3. 기부를 통해 아름다운 나눔의 삶을 실천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소개해주세요.

김대선 경기 시흥시 정왕동

1. '독도의용수비대 기념사업회 독도사랑 사진전' 기사를 보면서 독도가 대대손손 지켜나가야 할 우리 땅임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특히 민간인으로서 독도를 지켜낸 독도의용수비대의 예전 사진을 보니 6·25전쟁 이후 독도를 몸으로 수호한 그들의 용기가 존경스러웠습니다. 앞으로 이런 독도 관련 전시가 계속됐으면 합니다.
2. '교육정책'은 나라의 중요한 화두입니다. 나라의 미래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달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육개혁에 매진하는 정부의 '초심'이 흔들리지 않고 곧게 섰으면 합니다. 교육비리 근절 대책, 교육활동에 전념하는 교육문화 확산, 창의·인성교육을 위한 교육과정과 평가체제 혁신 등 교육개혁대책회의가 내놓는 정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길 희망합니다.
3. 곧 대학생들의 여름방학이 시작됩니다. 취업에 도움 되고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인턴십 프로그램이나 자원봉사 활동 등에 대한 정보를 알려줬으면 합니다.

독 자 의 견

〈Weekly 공감〉은 독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의견은 〈Weekly 공감〉 제작에 소중하게 반영하겠습니다. 아래의 설문에 의견을 적어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6월 16일(수)까지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의견이 게재된 분에게는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1. 이번 주에 실린 기사 중 가장 관심 있게 읽은 기사와 그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2. 이번 주 기획특집으로 다룬 '나라 위한 희생,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에 대한 의견을 적어주십시오.
3. 〈Weekly 공감〉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을 적어주십시오.


Korea 2010-2012 VISIT KOREA YEAR
따뜻한 미소로 말해주세요
"잘 오셨어요 환영합니다"
2010-2012년은 한국방문의 해 입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네는 당신이
대한민국 미소국가대표 입니다.
2010~2012 한국방문의 해
홍보대사 김연아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VKC (재)한국방문의해위원회
VISIT KOREA COMMITTEE

아르헨티나 넘고… 가자 16강으로!

아르헨티나戰 필승 전략 '협력수비'가 관건

최강 아르헨티나라고 해서 '져도 그만'이라는 생각은 우리 선수들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이다. 승점 1점에 사활을 거는 월드컵 본선에서 '버리는 게임'이란 있을 수 없다. 물론 벅찬 상대임엔 틀림없다. 전체적으로 경기는 아르헨티나가 주도할 것이다. 그러나 못 넘을 산도 아니다. 조직적, 협력적인 수비와 날카로운 역습 공격이 균형을 이룬 정교한 경기 운영이 키워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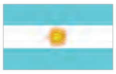


동아DB

한국전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아르헨티나의 필살기 공격 듀오 메시(오른쪽)와 아게로.



6월 17일(목)
20시 30분



아르헨티나의 초반 파상공세를 막아내느냐 여부가 경기의 흐름을 좌우할 것이다. 아르헨티나의 공격력은 실로 막강하다. 메시(바르셀로나)를 필두로 이과인(레알 마드리드), 테베스(맨체스터 시티), 아게로(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밀리토(인터밀란) 등 세계 최정상 클럽에서 활약하는 공격수들이 즐비하다. 누가 선발로 나오더라도 수비하기가 쉽지 않다.

마라도나 감독이 남아공 입국 후 철저하게 전력 노출을 피하면서 아르헨티나 언론조차 한국전 선발 공격진을 예측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 현재로선 4-3-3(혹은 3-4-3) 형태에서 앞선 3명의 공격수로 메시-이과인-테베스 라인이 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과인을 중심으로 메시와 테베스가 측면 공격수로 나서는 조합이다.

그러나 메시의 바람대로 마라도나 감독이 투톱 혹은 원톱 아래 처진 스트라이커로 메시를 세우는 포메이션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메시-이과인-테베스 분산·고립시켜야

메시-이과인-테베스 라인의 특징은 세 공격수가 행동반경에 구애받지 않고 좌우로 활발하게 위치를 변경하면서 상대의 골문을 노린다는 점. 특히 메시는 빠른 스피드로 측면에서 중앙으로 파고들면서 2 대 1 패스 등을 통해 수비벽을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능력이 발군이다. 순간 역습 때 스피드가 붙으면 수비수 2, 3명을 쉽게 제치고 골 사냥을 한다. 사정권 안에서 날리는 왼발 중거리 슈팅도 정확도가 높다.

하지만 바르셀로나에서처럼 사비, 이니에스타(이상 스페인) 등 탁월한 패스 능력을 갖춘 선수들의 지원사격을 받기 어려운 메시가 자신의 장점을 1백 퍼센트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로이터



로이터



▲'무기가 너무 많아서 고민.' 마라도나 감독이 한국전에 어떤 공격 카드를 들고 나올지 주목된다. '제2의 마라도나'라 불리는 애제자 메시의 활용법이 변수다.
◀다재다능한 메시의 활동 반경에 따라 박지성의 역할과 포지션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08년 유럽챔피언스리그 4강전에서 바르셀로나의 메시를 상대하는 박지성.

테베스는 작지만 순간 돌파가 뛰어나고, 문전 쇄도도 위협적이다. 측면에서 중앙으로 볼을 치고 들어오면서 날리는 중거리 슛이 전매특허. 대표팀에서 이과인의 움직임은 메시에게 시선이 유도될 상대 수비수들의 움직임을 최대한 활용하는 데 포커스가 맞춰질 듯하다.

때문에 한국으로선 메시 한 선수를 마크하는 데 치중하기보다는 수비와 미드필더, 공격수들이 최대한 간격을 좁히고 압박을 가해 세 공격수를 분산시키고 고립시키는 수비 전략을 택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허정무 감독도 "아르헨티나엔 메시만 있는 게 아니다"라며 아르헨티나 전체 공격 옵션의 파괴력을 떨어뜨리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허 감독의 이런 계산은 아르헨티나와 비슷하게 패스를 통한 경기 운영이 강점인 FIFA 랭킹 2위 스페인전(6월 1일)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다.

메시의 중앙 쇄도가 매우 위협적이기 때문에 대표팀의 중앙 미드필더인 기성용, 김정우의 수비 가담 폭이 더욱 넓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미드필더 공간에서 아르헨티나의 볼 점유율이 높아질 수도 있다. 이런 경우 박지성이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서 수비와 공격을 전체적으로 조율하는 '시프트'도 예상해볼 수 있다.

공격에선 스페인과의 평가전에서 나타났듯, 몇 차례밖에 오지 않는 기회에서 골 결정력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 숙제다. 수비를 견고하게 쌓은 뒤 역습 상황에서 순간적인 문전 침투가 강점인 박주영의 스피드를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또 하나 클레멘테(에스투디안테스)-데미첼리(바이에른 뮌헨)-사무엘(인터밀란)-에인세(마르세유)가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아르헨티나 수비진의 공략 여부는 이청용의 활약에도 달려 있다. 스페인전에서도 이청용의 돌파, 그리고 박주영의 문전 침투에 스페인 수비진이 적잖이 당황했다.

이청용을 측면에서 상대하는 32세의 에인세는 노련한 플레이가 강점이지만 스피드에 약점이 있어 충분히 공략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청용의 플레이가 활발해진다면 그만큼 메시나 테베스 등 측면 공격수들의 수비 가담 부담도 더해질 수밖에 없다.

박주영 '문전침투', 이청룡 '돌파' 최대한 살려야

아르헨티나전을 앞두고 2006년 독일월드컵 예선 2차전 프랑스전(1-1무)에서 보여준 효율적인 경기 운영을 복기해 볼 필요가 있다. '아르헨티나'라고 하니 문득 좋은 기억이 떠오른다. 1991년 포르투갈 세계청소년축구(U-20)대회에서 남북단일팀은 예선 2차전에서 예상을 뒤엎고 우승 후보 아르헨티나를 1-0으로 격파했다. 결국 아르헨티나를 조 최하위로 몰아넣으며 당당히 8강에 진출했다.

같은 예선 2차전 왠지 느낌이 좋다. 이번 대결이야말로 진검 승부다. G

글 · 유재영 기자



동아DB

'2010 남아공월드컵' 안전하게 즐기기

물 많이 마시고 편한 마음으로 보세요

무엇이든 과하면 탈이 나게 마련. 활기찬 흥분도 지나치면 독이 될 수 있다. 2010 남아공월드컵에서 한국의 16강 진출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은 더할 나위 없이 크지만, 져도 박수를 보낸다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지켜보면 어떨까. 90분 내내 무거운 긴장에 휩싸이다간 월드컵을 다시 못 볼 수도 있다. 즐기자!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 한국 경기가 벌어지는 경기장을 찾아 응원 방송을 하던 개그맨 이경규 씨는 16강전인 이탈리아와의 경기를 관전하다 후반 막판에 넋을 잃고 자리에 제대로 앉아 있질 못했다. 경기 몇 시간 전부터 긴장감 속에서 계속 응원을 펼친 탓에 체력이 급격히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대표팀은 경기 내내 이탈리아에 끌려가다 후반 극적으로 동점골을 뽑아냈다. 당연히 경기를 지켜보던 이들은 피가 마를 수밖에 없었다. 이 씨 또한 방송을 의식한 제스처는 절대 아니었다. 개그맨답게 그 와중에도 "월드컵이 사람 잡네…"라며 농담을 던지긴 했지만, 그의 말엔 '진심'이 담겨 있었던 게 아닐까 싶다.

특히 한국 경기 관전 중에는 긴장, 흥분, 허탈감으로 이어지는 '감정 곡선'이 수시로 요동치기 때문에 호흡곤란, 심장마비 등과 같은 우발적 사고 발생이 우려된다. 고혈압, 심장질환 등의 지병이 있는 환자는 더욱 위험하다.

지나친 흥분으로 호흡곤란·심장마비 오기도

실제 지난 2002년 한일월드컵에선 7명이 심장마비 등의 사고로 숨졌고, 2006년 독일월드컵 당시에도 덕수궁에서 한국-스위스전을 응원하던 20대 대학생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숨졌다. 한국-토고전에서도 경기를 보던 80대

노인이 우리 팀이 극적인 역전승을 거둔 흥분으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월드컵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간호협회는 국민의 안전사고를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 '2010 월드컵 건강 무지개 수칙'을 마련해 발표했다.

'2010 월드컵 건강 무지개 수칙' 발표

이 수칙의 내용은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HEALTHY'라는 7개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의학 관련 용어를 기초로 다음과 같이 만들었다.

▲지나친 흥분으로 심장에 무리를 주는 것을 피한다(Heart protection·심장 보호)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의 긴장을 줄인다(Exercise·운동) ▲지나친 고함은 갈증이나 탈수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수시로 물을 마신다(Aqua·수분 섭취) ▲소화기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채소나 과일 등 저칼로리 식품을 섭취한다(Low-calorie·저칼로리 식이) ▲월드컵 관전으로 수면이 부족해 피곤하고 판단력이 흐려지므로 다음 날 아침은 대중교통을 이용한다(Transportation·대중교통) ▲행복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즐기며 관전한다(Happy mind·즐거운 마음) ▲성대 보호를 위해 장시간 노래 부르지 말고 큰 소리 치지 않는다(Yelling stop·목소리 아끼기). 아울러 수칙별로 그 이유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간호협회는 네이버, 야후, 다음, 네이트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 이 수칙이 배너 광고 형태로 소개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또 시청 앞 광장 및 전국 경기장 전광판, SBS 월드컵 경기 방송 중에도 자막으로 넣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G

글 · 유재영 기자

동아DB



밤과 새벽에 과도하게 응원을 하거나 소리를 지를 경우 신체리듬이 깨져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할 수 있다.

2010 월드컵 건강 무지개 수칙 '이유와 전략'

❶ 심장 보호

이유 | 응원 때의 극도의 흥분과 긴장은 혈압과 맥박수를 증가시킬 수 있고,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숨이 가쁘고 통증이 생길 수 있다.

전략 | 흥분을 자제하고 전반전이 끝나면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고 천천히 심호흡을 하며 휴식을 취한다. 관전 시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조이는 증상이 오면 즉시 관전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한다.

❷ 운동

이유 | 경기를 관전하면서 같은 자세로 오래 앉아 있거나 서 있으면, 근육이 경직되며 하지에 혈류가 정체돼 혈전이 생긴다.

전략 | 관전 중에 '더 자주, 더 많이 움직일 것'을 권하며, 스트레칭과 발목운동을 한다. 경기가 끝나면 30분 동안 가벼운 산책을 한다.

❸ 수분 섭취

이유 | 소리를 지르면 성대 안쪽의 모세혈관이 터지거나 물혹이 생기고, 술이나 담배도 혈압을 높일 뿐 아니라 탈수현상을 촉진한다.

전략 | 술, 카페인 섭취는 줄인다. 맑은 물을 마시고 실내 습도를 조절한다.

❹ 저칼로리 식이

이유 | 낮에는 지방세포를 분해하는 글루카곤이 인슐린과 함께 분비되지만, 밤에는 인슐린만 분비돼 간과 내장에 지방을 축적시켜 소화기관에 부담을 준다.

전략 | 간식을 섭취할 경우 청량음료와 스낵 대신 칼로리가 낮은 싱싱한 과일이나 채소를 섭취한다. 흥분된 교감신경을 진정시키는 트립토판이 많이 함유된 바나나, 땅콩 등이 좋다. 비타민B와 C도 필수.

❺ 대중교통 이용

이유 | 밤에 깨어 있으면 수면리듬의 균형이 깨지고 신체에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멜라토닌이 적게 분비된다. 게다가 성장호르몬 분비도 적어져 낮에 활력이 떨어진다. 이 때문에 과도한 졸림증을 가진 사람의 절반이 교통사고를 당한다는 통계도 있다.

전략 | 새벽 관전을 하려면 미리 낮잠을 자거나 초저녁에 잠을 자두고, 경기 관전 다음 날은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❻ 즐거운 마음

이유 | 경기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강렬한 분노와 흥분 등 정신적 스트레스가 생기고, 이는 심근허혈이나 부정맥의 원인이 된다.

전략 | 가능하면 여러 사람이 모인 장소보다는 자택 등 조용한 곳에서 여유 있게 관전하는 게 좋다. 또한 경기결과에 집중하기보다는 행복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즐기며 관전한다.

❼ 목소리 아끼기

이유 | 평소보다 성대의 진동이 늘어나면서 마찰 때문에 성대점막이 충혈되고 부어올라 음성이 변하게 된다.

전략 | 30분 이상 말하거나 고함을 지르지 말고, 소음과 먼지가 많거나 공기가 탁한 곳에서 관전하지 않는다. 담배, 술, 카페인은 성대 건강에 치명적이므로 피한다.

“융합과 콘텐츠로 세계 중심 되어야”

‘세계전략포럼 2010’ G20·한국 미래전략 논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서울 개최를 계기로 선진국 도약을 준비하는 한국은 과연 어떠한 미래를 맞을 것인가.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과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미국 국무장관이 ‘G20 체제와 한국의 미래전략’이라는 주제로 의견을 밝혔다.

“향후 한국이 계속 성장하는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융합과 콘텐츠가 필요하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6월 8, 9일 양일간 서울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열린 ‘세계전략포럼(WSF) 2010’ 둘째 날 기조연설에서 이렇게 역설했다. 곽 위원장은 ‘G20 체제와 한국의 미래전략’이란 제목의 연설을 통해 “선진국은 잠재성장률이 떨어진다는 틀을 깨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노동과 자본에 충격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미국 국무장관도 포럼 첫날 곽 위원장과 같은 제목의 기조연설에서 한국 정부가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해 주도면밀하게 계산된 대응을 하고 있다고 평가한 뒤 “세계경제가 성장할 수 있을지 여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달려 있다”며 한국의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 역할을 기대했다. 다음은 두 사람의 기조연설 주요 내용.

이데일리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세계전략포럼 2010’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콘텐츠에 따라 10년 후 한국 기업 순위 정해질 것”

한국이 선진국으로 가더라도 노동과 자본의 패러다임을 바꾸면 저성장의 틀을 깰 수 있다. 바로 ‘퓨전(Fusion)’과 ‘컨버전스(Convergence)’, 우리말로 ‘융합’이다. 즉 노동과 자본공급에 있어 해외 인력이나 자본을 적극 끌어들여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빈손으로 출발해 교육에 대한 열망으로 성공한 나라가 됐다. 그러나 현재 가구당 소득의 20~50퍼센트를 사교육에 지출하는 등 우리의 장점이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세계 최저 출산율로 향후 노동력 공급이 우려되고 있다. 자녀 사교육비로 돈을 다 쓰고 나니 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후대책도 없다.

그러나 한국의 미래를 예측하면 반드시 잠재성장률이 떨어진다고만 보지는 않는다. 최근 노동에 있어서는 복수 국적을 인정하는 법이 통과됐고, 자본에 있어서는 아부다비 원자력발전소를 수주하면서 아랍에미리트(UAE)를 전략적 동반자로 선택하는 등 ‘융합’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교육개혁이 성공하고, 우수한 해외 ‘휴먼 캐피털(인적 자본)’을 유인하는 등 퓨전과 컨버전스에 적극 나선다면 ‘선진국=저성장’이란 틀을 깰 수 있다.

향후 우리나라가 무엇을 먹고살 것인가에 있어서는 ▲콘텐츠 ▲미디어 ▲3D를 어떻게 엮을 것인지가 중요하다. 과거 30년을 현재와 비교하면 가장 많이 변한 것이 기술이다. 정부가 기술을 주도하던 시대는 끝났다. 미래는 민간이 선도해야 한다.

영화 〈아바타〉의 경제적 가치는 서울 강남아파트 3천4백채, 현대자동차 아반떼 16만 대, 아시아나항공 1년 매출과 맞먹을 정도다. 앞으로 5년 후 앱스토어는 7배, 스마트폰은 11배, 3D는 10배로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동참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이데일리



6월 8, 9일 이틀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세계전략포럼 2010.

이데일리



올브라이트 전 미국 국무장관은 G20 서울 정상회의를 주재할 한국의 역할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하지 못하면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애플이 아이폰으로 콘텐츠를 뒤흔든 추세가 앞으로 10년은 갈 것이다.

한국과 중국이 제조업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콘텐츠는 사회 분위기가 자유로운 우리에게 경쟁력이 있다. 천안함 피격사건의 예만 봐도 우리는 자유로운 의견을 개진하지만 중국은 시장경제임에도 정치적 규제가 있다. 콘텐츠에 따라 10년 후 우리나라 10대 대기업의 순위가 모두 바뀔 것이다.

매들린 올브라이트 前 美국무장관
"한국은 세계의 중심… G20 의장국 역할 기대"

5개월 뒤 G20 서울 정상회의가 열린다. G20은 G7을 대신해 국제경제의 공조를 논의하는 세계경제의 장(場)이다. G20은 세계 인구의 3분의 2, 생산량의 10분의 9를 차지한다.

한국이 이번 G20 정상회의 의장국이 된 것은 적절한 결정이다. 이를 통해 세계경제의 동향과 한국의 높아진 위상을 볼 수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국제 번영을 이끄는 동력이며 세계경제의 성장 여부를 볼 수 있는 가늠자다.

특히 한국은 급속한 발전과 성장으로 독특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한 세대 안에 빈곤에서 탈출한 모델이 되고 있는 한국은 개도국과 선진국의 가교가 될 수 있다.

의장국의 역량은 매우 중요하다. 세계경제의 회복과 지속가능성, 그리고 균형이 풀어야 할 과제다. 이러한 과제 달성을 위한 몇 가지 도구를 보자. 첫째, G20 그 자체다. 논의를 조율하고, 합의된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도구다. 둘째, 법치주의 확립이다. 자본주의야말로 가장 역동적인 체제지만 힘 있는 소수가 법을 조작하면 지지를 잃을 수 있다. 셋째, 자유로운 통상정책이다. 보호주의는 큰 과오가 될 수 있다.

국지적 위기는 극복할 수 있다. 공조는 습관이 돼야 한다. 이는 경제영역뿐 아니라 안보에도 적용된다. 유감스럽게도 북한에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

"한국이 이번 G20 정상회의의 의장국이 된 것은 적절한 결정이다. 이를 통해 세계경제의 동향과 한국의 높아진 위상을 볼 수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국제 번영을 이끄는 동력이며 세계경제의 성장 여부를 볼 수 있는 가늠자다."

구소련의 해체로 북한은 혼자가 됐다. 중국도 경제가 개방돼 북한에 대해 같은 길로 가야 한다는 압력을 줬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문제는 변화가 주는 이익을 취하되 그에 따른 위험을 지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다.

지난 10년간의 화해 가능성은 지속적으로 사라지는 추세다. 일차적 책임은 북한에 있다. 천안함 피격사건은 예측 가능한 한반도 상황을 기대하는 사람들을 실망시켰다. 앞으로 인센티브를 준다 해도 북한 정권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수년에 걸쳐 한국 정부는 우호적이었지만 북한은 안보위협을 가했다.

북한은 세계 규범을 따라야 한다. 북한은 그 안에서 생존할 수 있겠지만 스스로 더 강해질 수는 없다. G20 정상회의를 통해 북한과 한국이 걸어온 다른 길의 차이에 주목할 것이다. 우리도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북한사회에 인도적 요구가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한다. 관계 개선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

다음 행보를 알 수 없는 북한의 태도는 한국과 미국에 정책적 딜레마를 야기한다. 딜레마를 해결할 수 없다면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한국의 성취를 가려서는 안 된다. 한국은 세계의 중심에 있다. G

글 · 박경아 기자

"6월 그날 우리는 하나였다"

6·10 민주항쟁 23주년 기념식 열려

23년 전인 1987년 6월,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온 국민의 함성이 이 땅에 메아리쳤다. 수백만 시민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독재 종식과 민주 쟁취를 외쳤다. 6월 항쟁은 국민 스스로 성취한 우리 민주주의 역사의 빛나는 분수령이었다.



조영철 기자

함세웅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이 6·10 민주항쟁 23주년을 맞아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통일이란 시대적 과제 앞에 서로 다름을 뛰어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함세웅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백낙청·이부영 씨 등 민주화운동 관련 인사, 그리고 박종부(박종철 열사의 형) 씨, 배은심(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씨를 비롯한 유가족 등 4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3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을 열었다.

기념식은 이명박 대통령의 기념사와 함 이사장의 '국민에게 드리는 글' 낭독에 이어 참석자들의 '광야에서' 합창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맹형규 장관이 대독한 기념사에서 "6월 항쟁은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국민 스스로 성취한 우리 민주주의 역사의 빛나는 분수령이었다"며 "6월 항쟁을 통해 우리 사회는 실질적인 민주발전을 이룩했다"고 그 의미를 평가했다.

"6월 정신 계승해 사회적 합의 이룩해가야"

이 대통령은 이어 "민주화 이후 우리는 과감한 정치·사회적 개혁을 통해 민주적 제도들을 정착시켰고, 두 차례에 걸쳐 평화적이고 수평적인 정권교체를 이뤄냄으로써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한층 단단히 뿌리내렸다"며 "대한민국은 전후 독립국가들 중 산업화와 민주화를 한 세대 만에 동시에 달성한 매우 드문 나라"라고 말했다.

> 오늘의 시대적 과제는 통일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역사적 성찰을 통해 참회하며 동료와 이웃, 생각이 서로 다른 계층과 허심탄회하게 소통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뤄가야 한다.


조영철 기자

제23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 달성을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로 '지역주의'를 지적한 이 대통령은 "정치권 역시 대화와 타협에 의해 민생과 국정현안을 깊이 있게 논의하는 장(場)이 되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양극화로 인한 불평등의 확대 역시 우리 민주주의의 또 다른 과제이지만 다행히 지난해부터 개선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정부는 다 함께 잘사는 사회를 위해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라는 정책기조를 흔들림 없이 지켜갈 것"이라며 "6월 그날에 온 국민이 하나가 됐던 것처럼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모두의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면서 국민통합에 더욱 힘쓰고 선진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더 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함세웅 이사장은 이날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올해는 참으로 뜻깊은 해"라며 "을사늑약(勒約·억지로 맺은 조약이란 의미)의 핵인 침략자 이토 히로부미를 제거한 안중근 의사 순국 1백 주년, 민족상잔의 비극 60주년, 4·19 민주혁명 50주년, 그리고 5·18 광주민중항쟁 30주년을 맞는 해이며 또한 자신을 불태워 시대의 등불이 된 전태일 노동청년의 산화 40주년, 그리고 통일운동의 큰 이정표인 6·15 남북공동선언 10주년을 맞는 해이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함 이사장은 "일제 침략시기의 시대적 소명은 항일독립투쟁, 1960~80년대의 시대적 과제는 민주주의 실현, 그리고 오늘의 시대적 과제는 바로 통일"이라며 "이 시대적 과제 앞에서 우리는 역사적 성찰을 통해 참회하며 동료와 이웃, 생각이 서로 다른 계층과 허심탄회하게 소통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룩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 이사장은 "천안함 피격사건이라는 비극 앞에서 남북이 취하고 있는 경색 국면의 태도와 남북이 각각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에 기대는 모습을 지켜보노라면 선조들 앞에 너무 부끄럽고 죄스럽다. 민족 문제는 남북 당사자 대화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명동성당까지 행진 '민주올레' 등 시민참여 행사도

그는 또 정부와 여당에 대해 "국민의 마음을 진정으로 위로하고 국민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국민들이 흘리는 땀과 눈물을 닦아주기 바란다"며 "민주주의의 위기를 걱정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민족의 일치와 화해를 위해 6월 민주항쟁 정신으로 거듭 태어나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정부는 6·10 민주항쟁의 의의를 되새기고자 2007년 이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이후 매년 기념행사를 해왔다. 이날 정오에는 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 등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6월 민주항쟁 기념식'이 성공회 서울대성당에서 열렸다. 이어 오후 1시부터 성공회 대성당에서 서울시청 광장을 거쳐 6월 민주항쟁의 중심지였던 명동성당까지 행진하는 '민주올레' 행사를 가졌다.

한편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도 이날 오전 10시 부산민주공원 소극장에서 6월 민주항쟁 23주년 기념식을 개최하는 등 6월 10일 전후로 부산과 대구, 대전, 수원, 안산, 원주, 전주 등 전국 12개 지역에서 6월 민주항쟁 23주년 기념식과 함께 전야제, 문화 축제, 시민걷기대회 등 다양한 시민참여 행사가 열렸다. G

글 · 박경아 기자

학교를 '절대안전구역'으로

"우리 아이들 24시간 보호한다"

초등학생 납치 성폭행 사건이 또 발생함에 따라 초등학생들에 대한 3백65일 24시간 학교 안전망 서비스를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24시간 학교 순시·순찰 시스템을 구축하고, 초등학생의 등·하교 상황을 알려주는 '안심 알리미'도 전면 확대한다.

'조두순 사건'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가 채 가라앉기도 전에 또다시 초등학생이 납치돼 성폭행을 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6월 7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초등학교 2학년생 A양이 학교 재량 휴업일에 방과후 학교 컴퓨터 수업을 듣기 위해 등교했다가 가해자 김수철에게 납치돼 무참히 성폭행당한 것이다. 이번 사건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교회 앞에서 등교하던 여자 어린이를 교회 화장실로 끌고가 성폭행한 조두순 사건을 떠올리게 했다.

두 사건은 모두 등교시간과 방과후 학교 등 학교 내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시간에 학생안전 사각지대에서 발생, 학생의



일러스트·이우정

안전 상황에 대한 학부모와의 연락체계가 미흡했다는 문제점을 보여줬다.

또 학교에는 외부 출입인을 발견했을 때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결함이 있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교직원, 방과후 수업 강사, 경비원 등이 있는 경우에도 외부 출입인에 대한 경계의식이나 학교안전의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외부 출입인에 대한 무관심, 학교에 대한 주인의식 부족, 학교 관리자들의 학생안전 불감증, '설마 무슨 일이 있으랴' 하는 안일함 등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제2의 조두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초등학생 납치 성폭행 사건이 또다시 발생함에 따라 교육당국은 '24시간 학교 안전망 구축'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6월 10일 전국 시도교육청 초등교육과장 긴급회의를 열어 성폭력 등 각종 범죄 피해로부터 학생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은 모든 초등학교에 등교에서 귀가까지 24시간 학생 신변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정규 수업시간에는 배움터 지킴이와 교직원을, 방과후 활동 시간에는 관내 경찰 및 자원봉사자를, 야간 및 조조 시간에는 경비용역업체 등을 활용해 24시간 순시·순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



동아DB

> "외부 출입인에 대한 학교 구성원들의 무관심과 학생안전 불감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기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외부인의 경우 학교 방문 시 반드시 방문증을 받아 출입토록 하고, 방문증이 없는 출입인은 즉각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안심 알리미' 전면 확대… 안전교육 강화

이에 따라 학교장은 학교 폐쇄회로 TV(CCTV) 관리자를 지정해 주간에는 교무실 또는 행정실에서, 야간에는 당직실에서 실시간 모니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조기 등교, 방과후 활동 공백시간 등 교사의 학생지도가 어려운 틈새시간에 아이들이 도서관, 시청각실, 특별실 등에서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교내 안전지대(Safe-Zone)를 반드시 지정 운영해야 한다.

교육당국은 또한 초등학생의 등·하교 상황을 알려주는 '안심 알리미'를 전면 확대하고, 방과후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출결 상황도 휴대전화 문자로 학부모에게 알리기로 했다. 안심 알리미는 2009년 40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된 후 올해 1천7백24개교에서 24만명을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다.

위기상황에 대한 신변 보호를 위한 학생안전 교육도 강화된다. 학교 구성원들의 외부 출입인에 대한 무관심과 학생안전 불감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기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학부모 수업공개, 학예회 등 특별한 날이 아니면 외부인의 경우 학교 방문 시 반드시 방문증을 받아 출입토록 하고, 방문증이 없는 출입인은 즉각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성폭력 등 각종 폭력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피해 학생 및 가족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부처 간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갖출 계획이다. 특히 피해자 가족에게는 학교안전공제회 및 법무부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최대한 보상하고 Wee센터, 청소년상담센터 등을 통해 상처 치유 및 상담 서비스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은 사건이 일어난 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관계자 및 학부모, 지역사회 전문가(Wee센터 상담사 등)와 간담회를 갖고 "학교가 각종 아동 범죄로부터 철저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학교를 '절대안전구역'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또 이번 사건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을 수 있는 피해 학생과 가족, 해당 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상담지원팀'을 긴급 지원하도록 지시했다.

한편 시도교육청에서는 곧 다가올 여름방학 학생안전 생활지도 계획을 포함한 '시도별 학생안전 보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G

글 · 이혜련 기자

대한민국, 국제 환경 중심국 도약

환경의 날을 전후해 이를 기념하는 축제와 캠페인이 펼쳐지는 등 다채로운 환경 관련 행사가 이어지고 있다. 또 우리나라가 세계 생물권보전지역의 리더로 뽑히는 경사도 있었다. 싱그러운 6월을 더욱 푸르게 만든 '그린 뉴스'를 모았다.

유네스코 MAB 의장국 선출
생물권보전지역 지정·관리… 2년 임기

우리나라가 차기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계획(UNESCO MAB)' 의장국을 맡는다. MAB 한국위원회 사무국은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지난 6월 2일 개최된 제22차 MAB 국제조정이사회에서 한국이 차기 의장국으로 선출돼 향후 2년간 MAB 한국위원회 최청일 공동위원장이 의장 임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유네스코 MAB 국제조정이사회는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점검할 뿐 아니라 신규로 지정하는 일까지 도맡는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이다. 우리나라는 제19차(2007년), 21차(2009년) 이사회에서 아시아를 대표하는 부의장국으로 뽑혀 의장단으로 활동했으며, 지난해 열린 제21차 MAB 이사회에서는 최청일 공동위원장이 의장 임무를 대리 수행한 바 있다.

인간과 생물권 계획은 유네스코가 주관하는 보호지역(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중 하나인 생물권보전지역을 지정 관리하는 프로그램으로 1971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설립됐다. 1980년 MAB 한국위원회가 국내에 설치됐으며, 2010년부터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22차 MAB 이사회에서는 광릉숲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이전까지는 설악산과 제주도, 신안·다도해가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있었다. MAB 한국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정연만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아시아 지역에서 처음으로 MAB 국제조정이사회 의장국으로 선출된 것은 큰 경사"라면서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IPBES 설립 협상회의
선진국-개도국 환경문제 가교 역할

생물다양성의 해를 맞아 환경부는 유엔환경계획(UNEP)과 공동으로 6월 7일부터 5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 정부 간 과학-정책기반 국제기구(IPBES·Intergovernmental Science-Policy Platform on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 설립을 위한 마지막 협상회의를 개최했다.

국립수목원



지난 6월 2일 제22차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계획 국제조정이사회에서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광릉숲.

연합



환경부는 유엔환경계획과 함께 지난 6월 5일부터 부산 벡스코에서 생물다양성 국제기구 설립을 결정하기 위한 마지막 협상회의를 개최했다.

IPBES는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 간 채널인 유엔 정부 간 기후변화위원회(IPCC)와 형태가 유사한 생물다양성 분야의 국제적 전문기구다.

이번 회의에는 1백여 개국의 정부 대표와 UNEP, 유네스코(UNESCO),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등의 국제기구, 생물다양성 관련 각종 국제협약사무국, 국제민간단체 대표 등 4백여 명이 참석했다.

각국 대표들은 이번 회의에서 IPBES의 설립 여부 결정뿐 아니라 기구의 역할과 생물다양성 관련 기존 국제기구와의 관계, 의사 결정 방식, 예산 및 조직구성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환경부

환경의 날을 하루 앞둔 6월 4일 수도권매립지에서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야생화 축제가 열렸다.

환경부는 국제기구 신설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우려하는 선진국과 생물다양성 관련 능력개발 지원이 필요한 개발도상국 간의 이견 해소를 위해 가교 임무를 수행하며 실질적인 논의를 주도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이번 회의에서 IPBES 설립이 합의된 것. 이에 따라 IPBES 설립은 올해 하반기 개최될 예정인 제65차 유엔총회 결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15회 환경의 날 기념행사
녹색성장! 녹색강국! 더 큰 대한민국

2010년 제15회 환경의 날을 하루 앞둔 6월 4일 오전 인천 수도권매립지에서 환경의 날 기념행사가 열렸다. 올해 행사는 정부의 녹색성장 선포 3주년과 환경부 출범 30주년에 의미를 두고 '녹색성장! 녹색강국! 더 큰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여기에는 폐자원을 에너지로 바꾸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자원 빈국에서 녹색자원 부국으로 나아가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날 행사에는 정운찬 국무총리와 이만의 환경부 장관 등 환경 관련 주요 인사와 시민 2만2천여 명이 참석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녹색성장은 경제와 환경이 하나가 되는 수단인 동시에 목적이 되는 새로운 흐름이며, 그 중심에 우리나라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환경보전에 크게 기여한 시민단체, 기업체, 언론, 공공기관 등의 유공자 39명에게 훈장을 포함한 정부 포상이 수여됐다. '수도권 환경에너지타운' 기공식도 함께 열려 자원의 선순환을 통한 녹색성장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웠다.

폐자원의 에너지화를 통한 녹색유전 개발에 목적을 둔 수도권 환경에너지타운은 2017년까지 약 1조5천억원을 들여 수도권매립지 내 약 4백60만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다. 폐자원, 자연력, 바이오, 환경·문화의 4개 테마 타운으로 세워지며, 완공 후에는 약 89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생산하게 된다. 환경부는 이와 더불어 글로벌 녹색관광 단지를 만들어 세계적인 환경명소로 키워나갈 예정이다.

이날 매립지 내에서는 야생화 축제, 생물다양성 문화 공연, 어린이 환경그림 그리기 대회 등 다양하고 풍성한 환경 관련 행사도 개최됐다. 환경부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행사장과 인근 국립생물자원관을 오가는 버스를 운행하기도 했다. 환경부 녹색협력과 서기정 사무관은 "이번 행사는 시민들에게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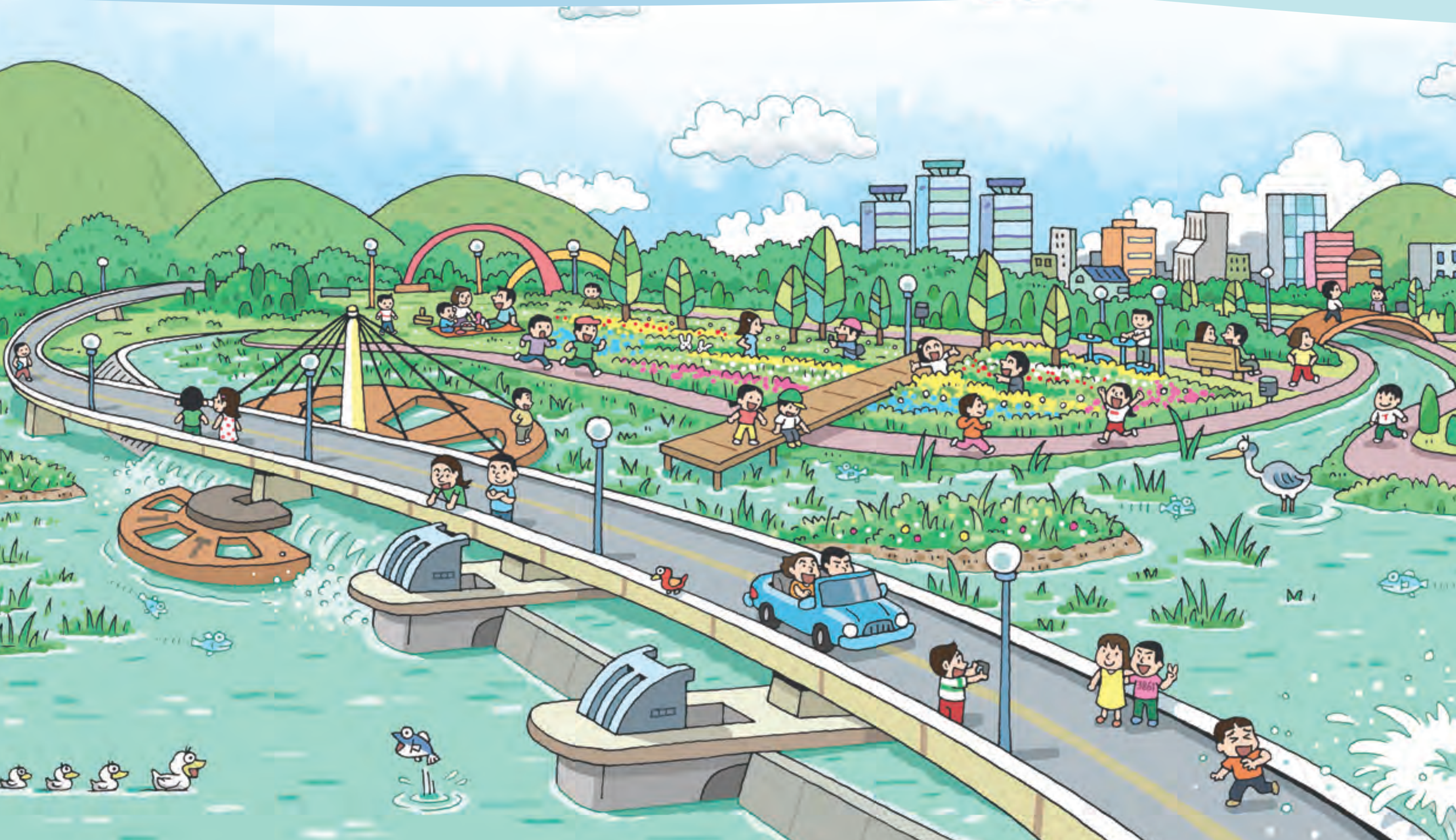
환경부는 이날 '이산화탄소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맺은 스타벅스와 함께 환경과 자원의 소중함을 알리는 친환경 캠페인도 벌였다. 매장에서 개인 컵을 소지하거나 머그컵으로 주문한 고객에게는 녹색성장위원회 추천 도서인 〈지구를 구하는 1001가지 방법〉이나 현금 할인 혜택을 줬다. 스타벅스는 지난해에도 개인 컵 소지자에게 3백원씩 46만4천 건의 현금 할인 혜택을 제공해 약 5천 킬로그램의 이산화탄소를 절감하는 데 기여했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수거에 노고가 많은 전국 환경미화원들에게 감사하는 의미에서 6월 한 달 동안 커피 봉사를 하기로 했다. G

글 · 김지영 기자



물로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K-water

맑고 깨끗한 물에서 순수한 생각과 정직한 삶을 배웁니다.
K-water는 힘차게 흐르는 물처럼 열정을 다해,
자연과 인간이 함께 웃는 행복한 세상을 창조해 내겠습니다.



충혼은 영원히 겨레 가슴에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 있는 유희남 시인(2001년 작고)의 시비 '님이시여'.

조영철 기자

"국가 위해 헌신한 분들 끝까지

6월은 나라를 지키다 산화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애국충정을 기리는 호국보훈의 달.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들의 희생으로 이뤄진 것이다. 특히 올해는 일제의 강제병합 1백 년, 6·25전쟁 60년이 되는 해다. 뼈아픈 역사의 교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어느 때보다 뚜렷하게 되새겨야 할 때다.



책임지겠다”


동아DB

“어머님, 조부님 모시고 철도 모르는 자식들 데리고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농사일 할 만한 사람이 없어 걱정입니다….”

“동생아, 싸워 물리치고 만세의 고성을 목이 터지라 외치고 화랑담배 피워 문 벅찬 감격 속에서도 너를 잊어본 적이 없었다. 살점이 떨어지고 뼈가 천만 번 부서져도 기어코 승리해 얻은 평화 속에서 멋들어진 웃음으로 껄껄 웃고 싶다….”

1953년 4월 12일 강원도 김화지구 전투에서 전사한 것으로 알려진 고(故) 김종석 하사가 가족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다. 치열한 전쟁터에서 가족을 그리워하는 애국 청년의 심정이 절절히 녹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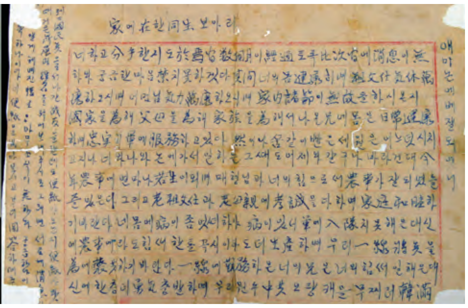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 이후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조인될 때까지 13만7천8백99명의 젊은이가 김종석 하사처럼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다. 부상병과 실종·포로병, 그리고 유엔군까지 합치면 77만6천3백60명이 대한민국을 위해 스스로를 희생했다.

‘6·25전쟁 60주년’ 역사적 의미 되새기는 사업 추진

6·25전쟁이 일어난 지 60년이 됐다. 그러나 아직도 그때의 상흔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적지 않으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이자 휴전국으로 남아 있다. 6·25전쟁은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현재인 것이다.

하지만 6·25전쟁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의식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6·25전쟁 60주년 기념사업회가 지난해 9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의 33퍼센트가 6·25전쟁 발발 연도를 잘못 알고 있거나 아예 모른다고 대답했다. 특히 20대 이하 연령층에서는 절반 정도가 6·25전쟁이 언제 일어났는지 모르고 있었다. 또 6·25전쟁을 일으킨 것이 북한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14.6퍼센트가 아니라

◀6·25전쟁의 격전지였던 강원 철원군과 경기 연천군 일대의 중부전선.
▼1953년 4월 12일 강원도 김화지구 전투에서 전사한 고 김종석 하사가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에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조국애가 절절히 녹아 있다.



국가보훈처



조영철 기자

6·25 참전 국가유공자인 박종우 예비역 중령은 서울 마포초등학교를 찾아 어린이들에게 6·25전쟁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고 하거나 잘 모르겠다고 응답해 6·25 관련 역사 지식이 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6·25전쟁 60주년을 맞아 6·25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6·25를 잘 모르는 젊은 세대에게 6·25를 바로 알리고 호국보훈의식을 높이기 위해 6·25 참전유공자가 6·25전쟁의 역사적 사실과 보훈의 필요성을 직접 전달하는 보훈참여수업을 전국 1백30여 초중고교에서 실시한다.

지난 6월 10일 서울 마포초등학교 대강당에는 4학년과 5학년 학생 2백50여 명이 6·25 참전용사인 박종우(82) 예비역 중령에게서 6·25전쟁 이야기를 들었다. 박종우 씨는 6·25전쟁 당시 백선엽 장군이 지휘하는 1사단 휘하의 하사(현재의 상병)로 38선을 돌파하고 평양에 제일 먼저 입성하는 등 공을 세워 화랑무공훈장을 받았다.

그는 "6·25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지고 안보의식이 갈수록 희석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어린이들이 역사를 바로 알고 자랄 수 있도록 호국보훈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유공자 처우 개선 등 보훈체계 확립

정부는 또한 6·25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 생존한 국내 6·25 참전자 23만7천명 모두에게 대통령 명의의 감사서한을 발송하고, 6·25 중상이 전상군경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특별 위문방문을 하기로 했다. 또 최고의 군 의전으로 감사와 위로 행사를 개최하고, 5천여 명의 참전유공자가 전적지를 방문하는 호국순례를 실시한다.

> **"보훈정책은 국민이 공감하는 보훈체계를 확립해 국가유공자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서해교전을 제2연평해전으로 전쟁사적 의미를 격상해 정부 주관 기념식을 거행하고 다양한 선양사업을 전개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6월 6일 제55회 현충일 추념사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은 정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국가를 위한 희생이 정당하게 보상받고 존경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따라서 보훈정책은 국민이 공감하는 보훈체계를 확립해 국가유공자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까지 정부는 6·25 참전유공자 21만명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명예와 자긍심을 높였고, 서해교전을 제2연평해전으로 전쟁사적 의미를 격상해 정부 주관 기념식을 거행하고 다양한 선양사업을 전개했다.

또 고령에 질환자가 대다수인 보훈 대상자의 진료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보훈중앙병원의 건립을 추진(1천4백 병상, 2013년 개원)하고 민간위탁 병원을 2백 개소에서 3백6개소로 늘렸다. 또 재가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유공자를 3천5백명에서 9천5백명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올해도 보훈 대상자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국가유공자 보상금 단가를 5퍼센트 인상하고, 향후 보상금 인상

률은 물가, 경제성장률, 가계 지출비 등 객관적인 국가 통계 자료와 연동하기로 했다.

생활이 곤란한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을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산정에서 제외하고, 무주택 보훈 대상자에게는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을 통해 2014년까지 7만3천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보훈선양교육을 통한 국가 정체성 강화도 중요한 보훈사업이다. 지난해 6월 '국민보훈의식지수'에서 우리 국민의 보훈의식지수는 1백 점 만점에 64점으로 나타났다.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위기극복에 동참하겠느냐는 질문에는 79.7점, 자긍심을 느끼느냐는 질문에는 72.3점이었다. 이는 2008년보다 나아졌지만 높다고 할 수 없는 수준이다.

정부는 특히 국가발전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의 역사의식과 국가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나라사랑시범 실천학교 운영, 보훈분야 교수학습경진대회 개최,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 독립군체험학교·보훈캠프·보훈문화교실 등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청소년 역사의식 고양 위한 체험 프로그램 마련

올해는 6·25전쟁 60년뿐 아니라 한일강제병합 1백 주년, 안중근 의사 순국 1백 주년, 청산리대첩 90주년 등 중요한 기념일이 많아 정부는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대규모 행사를 마련하고 있다.

한일강제병합 1백 주년이 되는 오는 8월에는 일제의 강제병합에 항거한 순국선열들의 합동추모제를 거행하고, 모든 초등학교에 교육책자를 배포한다. 청산리대첩 90주년 기념행사로는 대학생들의 전투지역 탐방, 나라사랑 승리콘서트 등 국민 참여 이벤트를 마련한다.

독립유공자 발굴과 포상도 대규모로 추진하고 있다. 유가족의 독립유공자 포상신청 방식과 병행해 정부가 직접 독립유공자를 발굴하고 있다. 당시의 정보문서, 신문 등에서 이름이 확인된 2만4천여 명을 심사하고 있으며 매년 5백명 이상을 포상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독립기념관을 상징적 애국 테마파크로 육성하고, 해외 독립운동 사적지를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며 친일재산 매각 대금을 활용해 독립정신 계승사업을 추진한다.

국가보훈처 기념사업과 조몽환 과장은 "호국보훈은 역사에서 미래를 찾는 나라, 국가의 소중함을 느끼는 국민, 국가를 위한 희생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일"이라며 "국가브랜드와 국익을 높이는 국제적 사업으로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G

글 · 이혜련 기자

함께해요, 호국보훈 행사

행사	일시	장소
호국보훈 문예공모	6. 1~30	창원 경남신문사 내
제25회 호국백일장 및 사생대회	6. 13	국립대전현충원
나라사랑 홍보관	6. 13~20	강릉단오제 행사장
나라사랑 합창발표회	6. 15	부산시민회관
보훈가족 초청 국악 공연	6. 16	안동시민회관
6·25전쟁 60주년 사진 전시회	6. 16~30	낙동강 왜관철교 위 등 4곳
6·25 참전 순국 소년지원병 합동위령제	6. 17	낙동강승전기념관 광장
6·25 당시 음식 재현 시식회	6. 17~24	낙동강승전기념관 외 8개소
주먹밥 먹기 행사 및 6·25 사진 전시회	6. 18	강원 춘천 명동농협 도지부광장
시민이 만드는 나라사랑 큰 나무	6. 18~19	안동 문화의 거리
현충시설 자매결연학교 보훈투어	6. 19	보훈공원 대전지구 전적비
6·25 60주년 나라사랑 한마음 6.25km 달리기	6. 19	대구 두류공원 일대 (6.25km 구간)
6·25전쟁 60주년 계기 추모음악회	6. 19	서대전시민공원
시민과 함께하는 나라사랑 음악회	6. 19	밀양 청소년수련관
도솔산 전적문화제 및 추모제	6. 19~21	양구 도솔산지구 전투위령비
거북이 마라톤	6. 20	서울 남산공원
호국보훈의 달 부산시민 걷기대회	6. 20	어린이대공원 순환도로
형산강 전투 연극 〈한국전쟁 영웅 연제근 상사〉 공연	6. 21	포항문화예술회관
나라사랑 큰 나무 장학금 전달식	6. 22	서울 백범기념관
6·25 60주년 재가대상자 작품 전시회	6. 22~25	대구 지하철 현충로역
순국선열 및 호국전몰군경 합동위령제	6. 24	칠곡 다부동 전적기념관
6·25 60주년 기념 열린음악회	6. 24	부산시민회관
제7회 호국정신 선양 달리기 대회	6. 24	안동 낙동강 둔치
6·25 60주년 특별기획 제전	6. 24~27	대구 신천 대봉교 둔치
제60주년 6·25전쟁 중앙 기념식	6. 25	서울 올림공원 내 체조경기장
6·25전쟁 60주년 지방행사	6. 25	육군 3사관학교
6·25 및 베트남 참전 기념비 제막식	6. 25	서울 망우공원 내
연제근 상사 조각상 건립 제막식	6. 25	포항 해도근린공원
춘천대첩 전승기념 및 심일 소령 추모식	6. 26	심일 소령 기념비
제60주년 6·25 특별 음악제	6. 26	진주교대 강당
호국보훈의 달 기념 나라사랑 실천 건강 걷기대회 및 음악회	6. 27	서울 중랑천변
제8주년 제2연평해전 기념식	6. 29	서울 전쟁기념관

단 1명도 포상에서 누락되지 않게

일제에 항거한 독립투사 재조명

광복 이후 지난 3월까지 국가에서 건국훈장, 건국포장, 대통령표창 등 훈장과 표창을 받은 독립유공자는 1만1천8백71명. 정부는 2005년부터 근현대사 전공 학자들이 주축이 된 전문사료발굴분석단을 운영해 국내외 독립유공자를 발굴, 재조명하고 있다.


국가보훈처

오광심 선생(오른쪽)은 1920년대 후반부터 광복 때까지 중국 대륙을 누비며 민족주의 교육과 독립운동에 헌신했다. 한국광복군으로 함께 활약한 남편 김학규(왼쪽), 서파(가운데) 선생과 함께 찍은 사진.

"우리 여자가 없으면 세계를 구성할 수 없을 것이며 또한 우리 민족을 구성하지 못할 것이다…한국의 현실을 볼 때에 국망(國亡) 30년 동안 조국광복과 민족의 자유를 위하여 맹렬한 활동을 한 것은 주로 남자 동지들이고 여성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으니 참으로 부끄럽다. 그러니 남녀평등과 여권을 찾으려면 여자도 남자와 동등하게 국가와 사회의 임무를 져야만 하며, 바로 지금이 여자들에게 그 기회다."

한국광복군 총사령부가 발간한 기관지 〈광복〉의 창간호(1941년)에 실린 '한국 여성 동지들에게 일언(一言)을 들림'이라는 기고문의 일부다.

단호한 필치로 여성들도 조국광복 활동에 나설 것을 독려한 이 글의 필자는 여성 광복군 오광심 선생. 한국이 일제에 강제병합된 1910년 평북 선천군에서 출생한 오 선생은 요녕성으로 이주해 독립운동단체인 정의부(正義府)에서 설립한 민족학교를 졸업한 후 20대 초반부터 광복 때까지 줄곧 독립운동에 투신한 여장부다.

지난 5년간 독립유공자 1,639명 발굴·포상

국사편찬위원회 김광재 연구사에 따르면 오광심 선생은 1931년 만주사변 이후 남만주의 독립운동단체인 조선혁명당 소속 조선혁명군(남만주 지역 독립운동군)의 비밀 연락책으로 활약했다. 1937년 중일전쟁 발발 후에는 임시정부 산하 한국광복전선 청년공작대에서 중국의 문화단체와 협력해 항일 선전활동을 벌였다.

그 후 한국광복군 모병활동을 치열하게 전개했는데, 1945년 3월까지 약 3년간 오 선생이 속한 한국광복군 초모(招募)위원회에서 길러낸 한국광복군은 전체 한국광복군의 절반을 차지할 만큼 성과가 뛰어났다. 오광심 선생은 1977년 독립유공자 최고의 서훈인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았으며, 지난 5월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재조명받기도 했다.

정부는 오광심 선생처럼 이미 서훈을 받은 독립유공자를 재조명하는 작업과 함께 그동안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독립유공자들의 발자취도 새롭게 찾고 있다.

지난 3·1절 91주년 기념식에서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은 이경호 선생은 황해도 옹진군에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다 체포되어 7년 넘게 옥고를 치른 인물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독립공채를 판매하고 만주에서 비밀결사 대원으로 활약하던 이경호 선생은 1930년 체포돼 복역하다 병고를 얻어 순국했다. 한편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은 이정국 선생은 중국 간도에서 국민회 경호원으로 활동하다 체포된 뒤 감옥을 탈출하려다 살해돼 순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안중근 의사가 순국한 뤼순감옥을 관할하던 관동도독부의 '정황보고 및 잡보' 자료가 지난 3월 최초로 공개됐다.
이 자료에는 미발굴 독립운동가 89명의 활동 기록이 담겨 있다.

정부는 독립유공자를 재조명하는 작업과 함께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독립유공자들의 발자취도 새롭게 찾고 있다. 한국의 독립운동을 물심양면으로 도운 외국인의 사례도 발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46명의 외국인이 독립유공자로 건국훈장을 받았다.

국했다. 이들과 함께 3·1절 91주년 기념식에서는 1백5명의 독립유공자들이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등을 받았다.

해외 사료를 바탕으로 미발굴 독립유공자를 찾는 작업도 활발하다. 지난 3월 국가보훈처는 안중근 의사가 순국한 뤼순감옥을 관할하던 '관동도독부 정황보고 및 잡보' 자료를 확보했는데, 이 자료에 언급된 2백28명의 독립운동가 중 89명은 이번에 처음으로 독립운동 사실이 밝혀졌다.

앞서 2월에는 일제강점기 간도 지역 일본영사관이 작성한 문건을 확보했는데, 여기에 실린 독립운동 관련 명단 2백1명 중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인물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한국의 독립운동을 물심양면으로 도운 외국인의 사례도 발굴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46명의 외국인이 독립유공자로 건국훈장을 받았다. 서훈자의 국적은 중국 31명, 영국 6명, 미국 4명, 아일랜드 3명, 캐나다와 일본 각 1명.

올해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은 윌리엄 린튼 선생도 독립운동의 숨은 지원자다. 1912년 선교사로 한국에 온 린튼 선생은 전북 옥구 영명학교 교장 재직 당시 군산의 3·1만세운동을 뒤에서 돕고, 일제의 만행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등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을 지지했다.

일본인 변호사 후세 다쓰지 선생은 한국 독립운동가를 변론해 무죄를 주장하는 등 항일운동을 적극 옹호한 공로를 인정받아 일본인으로는 유일무이하게 2004년 건국훈장을 받기도 했다.

이처럼 정부는 국내외에서 독립유공자를 찾아 포상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2005년 출범한 전문사료발굴분석단은 국내외 독립운동 사료를 수집 발굴하는 곳이다. 분석단은 대상자의 공적서를 검토한 후 한국 근현대사 전공 학자들로 구성된 독립유공자 서훈공적심사위원회에 의뢰한다.

독립운동 도운 외국인 46명에게도 훈장 수여

심사위원회에서 포상자로 의결되면 행정안전부가 포상추천을 하고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로 포상이 결정된다. 그 결과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독립유공 포상자 2천2백37명 중 73.3퍼센트인 1천6백39명을 포상했다.

국가보훈처 공훈심사과 김성민 박사는 "국내외 독립운동 사료를 샅샅이 발굴해 단 1명의 독립유공자도 포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집 후 공인된 사료는 공훈자료사료관 홈페이지에서 원문 그대로 제공한다. 현재 약 1백50만 장에 이르는 방대한 독립운동 관련 자료가 올라와 있다. G

글 · 최은숙 기자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사료관 e-gonghun.mpva.go.kr

“또 전쟁 나면 다친 다리 끌고 참전”

6·25전쟁 참전용사들의 이야기

6·25전쟁은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다. 천운으로 살아남은 이들도 몸과 마음의 상처로 고통의 나날을 보냈다. 전쟁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당시 전쟁터에서 구국의 투지를 불태운 국군과 유엔 참전용사들의 생생한 증언을 들었다.



조영철 기자

맹보영 씨는 1950년 9월 6·25전쟁의 마지막 보루인 낙동강 방어선을 지켜낸 영천 전투에서 전공을 세워 을지무공훈장을 받았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38선 북쪽의 북한 인민군 야포들이 남쪽을 향해 일제히 불을 뿜었다. 인민군 기동부대는 서쪽의 옹진반도로부터 동쪽으로 개성, 전곡, 포천, 춘천, 양양에 이르는 38선 전역에서 공격을 퍼부었다. 또한 북한 유격대와 육전대가 동해안을 따라 강릉 남쪽 정동진과 임원진에 상륙했다. 우리 민족 최대의 비극인 6·25전쟁은 그렇게 시작됐다.

그 무렵 육군 중위로 1개 중대를 이끌고 강원도 오대산에서 무장공비 토벌에 앞장섰던 맹보영(83) 씨는 "무장공비들이 틈만 나면 침투를 시도했지만 그렇게 갑작스레 쳐들어올 줄은 몰랐다"며 "6·25전쟁은 명백하게 북한의 남침에 의해 시작됐는데,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남한이 북침한 사건이라고 떠드는 일부 젊은이들을 보면 가슴속에서 불덩이가 치민다"고 목청을 높였다.

육사 7기 출신으로 소위 계급장을 달고 입대한 그는 6·25전쟁 당시 8사단 21연대 11중대장으로 수많은 전투를 치렀다. 여러 장병들의 목숨을 책임져야 하는 지휘관이었기에 잠시도 긴장의 고삐를 늦출 수 없었다. 그래서 지휘관이면서도 다른 고지로 이동할 때는 1개 분대만 앞세우고 진두지휘했다. 부하들과 일체감을 높이기 위해 잠자리도 병사들과 함께 하고, 식사도 같이했다.

"젊은 세대 北 경계 않는 것 불안해"

그래서일까. 그가 이끄는 11중대는 여느 중대보다 단합이 잘되고 사상자도 적은 편이었다. 인민군과 고지 점령을 놓고 치열한 전투를 거듭하면서 크고 작은 공도 세웠다. 그는 경북 풍기와 영천에서 벌인 전투를 가장 기억에 남는 전투로 꼽았다. 열하루 동안의 영천 전투(1950년 9월 2~13일)는 6·25전쟁 초기 아군에게 불리한 전세를 극적으로 역전시켜 전쟁의 마지막 보루인 낙동강 방어선을 지켜낸 구국의 일전이었다.

"풍기 전투에서는 남으로 밀고 내려오던 인민군을 역으로 공격해 이틀 동안 방어선을 구축했어요. 또 영천 전투는 국군 8사단이 인민군 2군단의 공격을 방어한 6·25전쟁의 일대 전환점이 된 전투였어요. 특히 우리 11중대가 그때 인민군 15사단의 1백22밀리 야포진지를 점령하는 전공을 세워 을지무공훈장을 받았죠."

전쟁 중에 그가 얻은 것은 자랑스러운 훈장만이 아니다. 갑작스럽게 날아든 포탄 파편 2개가 허벅지 깊숙이 박혀 지워지지 않는 상처도 얻었다. 그에게 전쟁을 겪지 않은 젊은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묻자 또다시 언성이 높아졌다.

"북한 인민군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

KTV 6·25 60주년 특집방송

날짜	프로그램	성격
6. 21	전쟁과 박물관	다큐멘터리
6. 21	역사, 평화를 말하다	파워특강
6. 22	유엔군 묘지의 마지막 증언	HD 다큐멘터리
6. 24	6·25 발발 60주년 '더 큰 대한민국'	뉴스·기획보도
6. 24	정보와이드 '조국 위한 희생, 정부가 끝까지 책임'	기획대담
6. 25	끝나지 않은 전쟁(가제)	영상기록
6. 25	6·25 특별전시 '사선에서'	뉴스·기획보도
6. 25	정보와이드 '6·25 특별전시 '사선에서' 작가와 함께'	기획대담
6. 25	정보와이드 '상이군경보훈 치료에서 재활로'	기획대담
6. 25	KTV 중계석 '제60주년 6·25기념식'	생중계

아리랑TV 6·25 60주년 특집방송

날짜	프로그램 내용
6. 1~30	**특별기획 공익캠페인 '기억합니다. 당신의 용기와 희생을' 편**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감사의 메시지 전달
6. 18~7. 3	**특집 Filler '한국전쟁 60년'** 남침 이후 북한군의 만행, 한국전쟁 이후 등
6. 19, 6. 26	**북한전문 정보매거진 Now in North Korea** 전쟁기념관 현장 진행, DMZ 현장 진행
6. 20	**정규 다큐멘터리 arirang Prime '어머니께, 학도병의 편지'** 18세의 학도병 이우근이 어머니께 쓴 일기 형식의 편지 메시지
6. 21~25	**Arirang News** 특별 연속리포트 '한국전쟁 60주년'(5편)
6. 21~25	**생방송 정보 매거진 arirang Today** 연속기획 '6·25 전쟁과 언론'(5편)
6. 21~25	**특집 5부작 '6·25 참전국이 제작한 한국전쟁 프로그램(가제)'** 터키의 전쟁 다큐멘터리, 필리핀의 6·25전쟁 소재 극영화 등 5개 참전국이 제작한 프로그램
6. 24, 6. 25	**토크쇼 Heart to Heart** 앤드루 새먼(영국 〈The Times〉 한국특파원) 등



6·25전쟁 참전용사들이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기록한 수기 〈기나긴 전쟁〉과 〈대전쟁〉.



조영철 기자

조덕제 씨는 전쟁 중에 잃은 전우들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을 치며 흐느꼈다.

리지 않았습니다. 전쟁 당시 제 고향인 경기 양평군에 쳐들어온 인민군이 지역 유지 5백여 명을 마을회관에 집결시켜 총살한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피가 거꾸로 솟아요. 젊은이들이 북한을 경계하지 않는 것이 걱정됩니다. 북한은 우리가 틈을 보이면 언제든 기습 도발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경기 고양시 일산에 사는 조덕제(77) 씨는 6·25를 생각하면 1953년 7월 13일 철원 373고지에서 중공군과 치른 전투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고 했다. 이 전투에서 그는 6사단 19연대에서 전우애를 나눈 15중대장 최덕명 대위를 잃었다.

"최 대위는 사방이 인민군에 포위돼 작전상 철수 명령이 떨어졌는데도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멀지 않은 곳에서 작전을 수행 중이던 저한테 '건빵 좀 보내라, 애들이 건빵이 없어 죽어간다'고 다급하게 요청했어요. '건빵'은 탄약을 가리키는 군대식 은어인데, 탄약이 없어서 싸우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부하들을 보며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하지만 적군이 밀려와 철수할 수밖에 없었어요. 총을 갈겨 쏘며 가까스로 헬기에 올랐는데 최 대위의 애타는 목소리가 귓전에 맴돌았어요."

> **최 대위가 "건빵(탄약)이 없어 애들이 죽어간다, 건빵 좀 보내달라"고 다급하게 요청했어요. 탄약이 없어 죽어가는 부하들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하지만 적군이 밀려와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총을 갈기며 가까스로 헬기에 올랐는데 최 대위의 애타는 목소리가 귓전에 맴돌았어요.**

그의 눈에는 어느새 그렁그렁 눈물이 고였다. 6·25전쟁을 치르며 4개의 무공훈장을 받은 '용맹한 군인'은 젊음을 불사르다 그의 곁을 떠난 전우들을 가슴에 묻은 듯했다.

6·25전쟁이 발발했을 때 그는 둘째 큰아버지인 조소앙(1945년 충칭임시정부 외무부장) 선생 집에서 기거하며 경복중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독립운동가 집안에서 자라 정의감과 애국심이 투철한 데다 교내 학도호국단의 중대장으로 리더십도 남달랐다. 그러던 중 자신의 친지가 인민군에 의해 무참하게 죽었다는 비보가 전해졌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자발적으로 참전했다. 불과 17살 때였다.

"국군이 전쟁에서 싸울 만한 젊은이들을 트럭에 태워가기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올라탔어요. 전투를 하며 이리저리 다니다 보니 꽁보리밥에 구더기가 둥둥 떠다니는 고사리국으로 끼니를 때우기 일쑤였고, 군화도 없어 낡은 천 농구화를 신고 싸웠는데도 힘든 줄 몰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입대 후 처음으로 쌀밥과 배춧국을 먹었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대전쟁〉 등 참전기 기록한 저서 출간 잇따라

1951년 육군보병학교를 마치고 18살에 소위가 된 그는 순간 판단력이 뛰어나고 용맹스러워 전투에 임할 때마다 다른 병사들의 모범이 됐다. 1952년 12월 강원 철원군 금성지구에서 싸우다 조명지뢰를 밟았을 때도 농구화와 군화, 설상화를 겹쳐 신은 덕에 발목을 잃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었다. 지금은 그 후유증으로 한쪽 다리를 절게 됐지만 전쟁이 끝난 뒤에도 그는 꼬박 30년을 군인으로 살았다.

"요즘 젊은 세대는 노인을 공경할 줄 모릅니다. 경로사상의 경을 '공경할 경(敬)'이 아니라 '가벼울 경(輕)'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6·25전쟁을 치른 우리 세대의 값진 희생이 없었다면, 또 유엔군의 도움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지금 없을지도 모릅니다."

최근 6·25전쟁 참전기를 기록한 저서 〈대전쟁〉이 호국보

훈의 달 6월을 맞아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책의 저자인 김종민(88) 씨는 8연대 8중대 선임장교로 참전했다. 불과 한 달 뒤 8연대가 해체되면서 그는 일명 백골부대로 불린 18연대에 편입돼 휴전협정이 조인될 때까지 3년 동안 18연대의 중대장, 부대대장, 대대장으로 최전선에서 싸웠다.

생사를 다투는 치열한 전투를 수없이 치러낸 그는 "18연대는 우리 부대원 스스로 '산골부대', '등골부대'라 칭할 정도로 중부와 동부전선의 산악지대를 오르내리며 혁혁한 공을 세운 부대"라며 뿌듯함을 감추지 못했다. 또한 그는 "이제 노병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며 "역사를 발굴하고 기록하는 작업이 활발히 이뤄져 우리 후손들이 6·25전쟁의 교훈을 되새기며 살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엔 참전용사들 "한국은 나의 또 다른 조국"

10대 때 미군 제7보병사단 소속 전투병으로 6·25전쟁에 참전한 데일 W. 케인(76) 씨도 자신을 포함한 미 참전용사 12명의 전투 체험담을 엮은 수기 〈기나긴 전쟁(The Longest War)〉을 펴내 잔잔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케인 씨는 "16세 때 나이를 속여 입대했다가 한국전 참전 중 나이가 들통 나 1950년 12월 전역을 당했다"며 "1952년 다시 육군에 입대하면서 한국전에 참전할 수 있었다"고 술회했다. 그는 또 "지금도 한국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휴전상태에 있을 뿐"이라며 6·25전쟁으로 분단된 우리나라의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6·25전쟁 참전 상이용사인 압둘카디르 타브샨(85) 씨와 그의 큰아들 우스트네르 타브샨(59) 씨의 대를 이은 한국 사랑도 눈물겹다. 압둘카디르 씨가 한국에 파병된 것은 부인이 첫아들을 낳은 지 15일 만의 일이었다. 어떻게든 공산주의가 확산되는 것을 막고 싶었던 그는 한국전 참전을 자원했고 아내도 그의 생각에 반대하지 않았다. 1951년 11월 20일 부산항에 도착한 후 7개월간 춘천, 원주, 수원, 파주 등을 돌며 전투를 치렀다. 터키 2여단 1대대 2중대 1소대장이던 그는 1952년 5월 15일 오후 5시 경기 파주시 문산의 일명 스탈린 언덕에서 전투를 마치고 귀대하던 중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한다. 지뢰가 터지면서 오른쪽 복사뼈 아래 발목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

그에게서 한국 동요 '산토끼'를 배우며 자란 큰아들 우스트네르 씨는 지난해 12월 사재를 들여 한·터키 민간협력단체인 '앙카라서울경제협회'를 세웠다. 터키 젊은이들로 하여금 '한국은 혈맹국가'라는 사실을 알게 하고자 이 단체를 만들었다고 한다. 현재 이 단체의 명예회장 직을 맡고 있는 압둘카디르 씨는 "한국전쟁에 참가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한국을 사랑하기에 한국에서 또다시 전쟁이 나면 다친 다리를 끌고서라도 참전할 것"이라면서 "한국은 나의 또다른 조국"이라고 밝혔다.

6·25전쟁은 이처럼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구국의지와 희생정신이 없었다면 지금도 계속되고 있을지 모른다. 우리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걸고 싸워준 참전용사들에 대한 고마움은 이 땅에서 대대손손 전해질 것이다. G

글 · 김지영 기자

얀 페테르 발케넨더 네덜란드 총리(앞줄 왼쪽에서 3번째)가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방문해 6·25전쟁에서 전사한 네덜란드 참전용사들이 잠든 묘역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

60년을 기다린 가족들 위해 오늘도…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10년… 3,367구 '가족 품으로'

6·25 발발 60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호국용사들이 차가운 땅속 어딘가에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이들의 숭고한 희생을 위로하고 유가족의 피맺힌 한을 풀어주기 위해 2000년부터 국군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이 추진돼왔다. 이 사업의 지난 10년 성과를 돌아봤다.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 조인. 하지만 전 국토를 초토화한 3년여 동안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한반도는 여전히 두 동강 나고 수많은 가족이 뿔뿔이 헤어져야 하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무엇보다 인명피해가 컸다. 6·25전쟁 당시 사망한 국군은 13만7천8백99명, 부상자는 45만7백42명, 실종자는 2만4천4백95명에 이른다. 유엔군 중에서도 4만6백70명이 목숨을 잃고, 10만4천2백80명이 부상했다.

민간인의 인명피해는 더 심했다. 24만4천6백63명이 죽고, 12만8천9백36명이 학살됐으며, 22만9천6백25명이 다쳤다. 게다가 북으로 납치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이 38만여 명, 피난민이 3백20만여 명에 달했다. 그로 말미암아 30만여 명의 전쟁미망인과 10만여 명의 고아가 생겨났다.

더욱 안타까운 일은 전쟁 중에 목숨을 잃거나 실종된 호국용사 중 아직도 13만여 명의 유해가 수습되지 못한 것이다. 전쟁 직후 수습해 국립현충원에 안장한 유해는 2만9천2백2구에 불과하다.

호국용사 13만명 유해 수습 못해

육군은 이처럼 6·25전쟁 당시 나라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쳤으나 미처 수습하지 못한 채 아직도 이름 모를 산야에 홀로 남겨진 호국용사들의 유해를 찾아 국립현충원에 모시는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을 2000년부터 추진해왔다.

당시 이 사업은 6·25전쟁 50주년 기념 호국보훈사업의 일환으로 한시적으로 시작됐는데, 실제로 많은 유해가 발굴되고 해를 거듭할수록 국민적 호응이 커지자 체계적이고 영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지난 5월 27일 육군 31사단 장병, 전남대 유적발굴팀과 함께 전남 화순군 백아산 정상 부근 교통호와 참호에서 유해발굴 작업을 실시했다.

동아DB





동아DB

지난해 12월 11일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 현충관에서 6·25 전사자 합동 봉안식이 열렸다.

구적인 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국방부는 2007년 1월 전사자 유해 발굴 전문부대인 유해발굴감식단을 창설하고 사업주체를 육군에서 정부로 전환했다. 이듬해인 2008년 3월에는 '6·25 전사자 유해 발굴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을 영구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지난해 3월에는 총리훈령이 제정돼 9개 정부부처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지원협력체도 출범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유가족 유전자 샘플 채취기관을 전국 보건소로 범위를 넓혔다. 그 결과 지난해 유해 발굴 실적은 1천1백13구로, 사업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한 해 1천 구를 넘어섰다. 이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발굴한 3천3백67구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전사자 유해 가족께 돌려드리는 건 소중한 책무"

올해부터는 유전자 샘플 채취에 참여하는 유가족에게 무료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전사자 유해발굴사업도 6·25전쟁 발발 60주년을 맞아 연간 10만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전국 55개 지역에서 오는 11월 말까지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지난 3월 2일부터 시작한 올해 유해발굴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6월 7일 현재 전국에서 총 7백27구의 유해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사업을 시작한 지 석 달 만에 올해 목표인 1천5백 구의 절반 가까운 유해를 발굴한 것이다.

유해발굴감식단의 유영승 공보장교는 "전사자의 유해를 찾지 못한 유가족은 지금이라도 전국의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해 유전자 샘플을 등록하고, 전사자의 유해가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은 유해 소재 제보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G

글 · 김지영 기자

6·25 참전 유엔군 후손에 장학금 지원

참전국 현지 위로감사 행사도



국가보훈처는 국제구호개발기구 월드투게더와 '유엔 참전용사 후손 장학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6·25전쟁 발발 60주년을 맞아 유엔 참전국의 공헌과 참전용사의 희생에 보답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사업이 활발하다. 국가보훈처는 국제구호개발기구 월드투게더와 '유엔 참전용사 후손 장학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월부터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후손에게 장학금을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

참전국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의 참전용사 후손들이 기초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돕는 이 사업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모은 1천원 미만의 봉급 우수리로 재원을 마련해왔다. 국가보훈처와 기상청 공무원들은 지난 1월부터 봉급 우수리 모금에 참여했으며, 국무총리실, 국가정보원, 시울시청, 전남 장성군청 등 여러 행정기관들의 동참이 이어졌다. 국가보훈처는 모금액 규모에 따라 장학금 지급 국가와 인원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6·25전쟁60주년기념사업위원회도 6월 1일부터 오는 11월까지 6·25에 참전한 유엔 21개국(의료지원국 포함)에서 위로감사 행사를 마련한다. 미국에서는 6·25 참전이 결정된 워싱턴D.C.의 국회의사당에서 정전협정기념일 전날인 7월 26일에 전·현직 참전용사 출신 상·하원 의원과 참전용사를 초청해 위로감사 행사를 연다.

또한 영국 행사는 6월 25일 6·25전쟁 파병 군함인 HMS 벨파스트(Belfast) 전함 박물관에서, 프랑스 행사는 같은 날 파리 개선문과 앵발리드 전쟁기념관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참전 21개국과 유엔본부를 비롯해 40여 개 도시에서 참전국 정부 관계자와 참전용사, 유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행사의 첫 테이프를 끊은 나라는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6·25전쟁에 5천3백여 명의 군인을 파견해 1백20명이 전사하고 6백여 명이 부상하는 아픔을 겪었다. 지난 6월 1일 네덜란드 스카베르겐 인근의 6·25전쟁 참전부대인 반 호이츠(Van Huetse) 부대 내에서 열린 현지 위로감사 행사에는 참전용사와 유가족, 정부 관계자, 교민 등 3백50여 명이 참석했다.



윤병국 회장은 "명예회복을 하지 못하고 답답한 세월을 살아야 했던 학도의병 동지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화는 누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지켜야 한다"

윤병국 대한학도의병동지회장

60년 전 사지를 헤매던 열아홉 소년은 백발노인이 됐다. 그러나 전쟁의 기억은 평생을 함께했다. 참혹한 전장에서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뒤 남은 삶을 '덤'으로 여기며 살아온 윤병국(80) 대한학도의병동지회장. 그를 만나 60년 전으로 시간여행을 떠났다.

1950년 여름, 파죽지세로 밀어붙이는 인민군의 공세에 국군은 전쟁 두 달 만에 낙동강까지 후퇴해야 했다. 서울에서 대전, 대구, 부산으로 수도를 옮겨간 정부는 그해 8월 낙동강 최후 방어선을 구축해 사활을 건 방어전에 나섰다.

당시 19세로 서울 경신중 6학년이던 윤병국 씨도 국군을 따라 서울에서 충북 증평을 거쳐 대구로 피난을 갔다. 피난지 대구에서 '전장에 나가 싸우자'는 김석원 수도사단장의 격문을 본 뒤 주변의 만류를 뿌리치고 학도병으로 자원입대했다.

백인엽 대령이 이끄는 부대에 배속된 학도병 부대는 경북 의성에서 8월 10일 포항으로 이동해 곧바로 전장에 배치됐다. 전장에 투입된 바로 그날 전투는 11시간 동안 이어졌고, 책을 버리고 총을 든 학도병들은 포항을 수중에 넣으려는 인민군에 맞서 맹렬히 싸웠다. 총 한 번 잡아본 적 없는 이들이지만, 조국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목숨을 걸고 싸웠다. 이 전투에서 70여 명의 학도병 중 64명이 죽고 겨우 11명만이 살아남았다.

열아홉에 책 대신 총 들고 바로 전장 투입

학도병 윤 씨도 M1 소총을 들고 동료와 함께 싸웠지만 인민군을 막아내지 못했다. 동료들은 하나 둘 쓰러져갔고, 어느새 그만 남았다.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돌아서는 순간 진지에

떨어진 수류탄이 뒤에서 폭발했다. 고막을 찢는 굉음과 함께 팔과 다리에 쇠파이프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 전해졌다. 윤 씨는 도망가야 한다는 생각에 발을 디뎠지만 파편을 맞은 다리엔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땅을 제대로 밟지 못했다.

그런 다리를 끌고 무작정 남으로 도망치다 미군을 만났다. 미군은 그가 포항 전투에서 살아남은 학도병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곧바로 울산 국군수도병원으로 후송했다. 그는 파편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고 병상에서 한 달 반을 지낸 뒤 퇴원했다. 윤 씨가 퇴원할 무렵 전세는 역전됐다. 국군은 북진했고, 그도 다시 군에 돌아가 정훈부대에서 활약했다.

그러나 윤 씨는 아직 학생 신분이었다. 그는 1951년 이승만 대통령의 학도병 복귀 명령에 따라 학교로 돌아갔고 살아남은 인생을 제2의 인생이라고 여겼던 그는 남은 삶을 후회 없이 살았다. 전쟁이 끝난 뒤 고향인 충남 서산으로 돌아가 지역 발전에 헌신했다.

하지만 군번 없는 학도병은 국가유공자 대접을 받기 어려웠다. 윤 씨와 다른 학도병들은 이를 바로잡는 데 평생을 바쳤다. 다행히 지금은 전투에 같이 참여한 동료의 확약서, 전투 중 공상에 대해 치료를 받은 기록 등 증거가 있으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윤 씨도 50년 넘게 외로운 싸움을 벌이다 2003년에야 행정소송을 거쳐 대한민국의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조국 지킨 동지들 명예회복이 내가 할 일"

"몇 년 전 미국에 갔을 때 음식점 종업원이 제가 지닌 상이군경증을 보더니 쏜살같이 주인에게 가서 뭐라고 얘길 하더군요. 알고 보니 음식점 주인의 할아버지가 한국전 참전용사였대요. 즉석에서 참전용사 파티가 열렸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반대예요. 참전용사 모자를 쓰고 거리에 나서면 소 닭 보듯 합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도 인사를 건네기는커녕 자리 양보하는 젊은이도 보기 힘들어요. 조국을 지킨 용사들이 내 조국보다 미국에서 더 대우받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2008년 윤 씨는 학도의병동지회를 만들었다. 자신처럼 명예회복을 하지 못하고 답답한 세월을 살아야 했던 학도의병 동지들을 위해서였다. 학도병은 과거에 '의용군(義勇軍)'으로 불렸지만 그는 "학도병은 조국을 위해 자발적으로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에 조선시대의 '의병(義兵)'과 같은 의미로 불려야 한다"며 이름도 '학도의병동지회'로 지었다.

"제가 눈 감기 전에 할 일은 동지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2008년 이 모임을 만들었어요. 제 몸은 성치



윤 회장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은 뒤 받은 훈장들.

> **어린 세대가 우리 같은 늙은이의 희생을 기억해주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요.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않지만 살아 있는 동안 할 수 있는 건 다 해볼 참입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명예를 찾을 수 있다면 편히 눈 감을 수 있을 거예요."

윤 회장은 팔십 노구를 이끌고 의병동지회 사무를 직접 처리하고 있다. 그는 매월 9만원 정도 유공자 수당을 받는다. 이 돈을 전부 전화비로 쓴다. 청와대 등 정부 각 부처에 학도병과 관련된 내용을 전하기 때문이다.

윤 회장은 "교과서에 학도병 얘기가 실려서 자라나는 후손들이 조국을 위해 목숨 바친 이들의 희생정신을 배웠으면 한다"며 "다행히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행정안전부에는 의병동지회를 비영리단체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해 현재 절차를 밟고 있다.

"며칠 전 현충원에 갔더니 유치원생들이 잔뜩 왔더군요. 아이들에게 6·25가 뭔지 아느냐고 물었더니 두세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어린 세대가 전쟁을 기억하고, 우리 같은 늙은이의 희생을 기억해주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요.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평화는 누가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키는 것'이란 말을 국민 모두가 기억했으면 해요." G

글과 사진 · 공감코리아(korea.kr)

보기만 해도 가슴 저리는 전쟁의 흔적

6·25전쟁 60주년 기념 사진전 '경계에서'



6·25전쟁 당시 작전 지도를 배경으로 포탄을 사진에 담았다. 경일대 사진영상학부 교수인 구본창 작가의 작품이다.



포탄에 맞아 구멍 나고 세월에 녹슨 철모. 구본창 작가의 작품.

주인 잃은 철모가 덩그러니 놓여 있다. 녹슬고 구멍 난 철모는 한순간에 60년 전으로 시공을 돌려놓는다. 그래서 바라만 봐도 가슴이 저려온다. 치열한 전장의 포탄 소리, '살아만 돌아오라'던 어머니의 애끓는 울부짖음이 귓전에 맴돈다. 이렇게 한 장의 사진이 잊지 말아야 하지만 잊혀가는 전쟁의 기억을 일깨워준다.

국방부는 '경계에서(On the Line)'라는 제목으로 오는 6월 24일부터 6·25전쟁 60주년 기념 사진전을 연다. 강운구, 주명덕 등 대표적인 사진작가 10명이 6·25전쟁의 흔적을 찾아 전국의 주요 전적지와 민간인 통제구역(민통선)을 사진예술로 기록하고 해석한 작품들이 전시된다.

▼ 강운구 작가는 경계의 가장 동쪽인 동해안 부근을 찍어 분단의 아픔을 표현했다.
1 '동해안 소초에서의 일출'. 2 '그 다리'. 3 '월정리에서'. 4 '그날 저녁의 눈'. 5 '훈련'.



유엔 참전국 美·英 등 순회 전시도

작가들은 '민통선'이란 경계를 앞에 놓고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전쟁을 기억하고 표현한다. 경계의 가장 동쪽인 동해안에서 일출과 일몰을 담아낸 강운구 작가는 분단의 찰나와 영속성을 얘기하고, 주명덕 작가는 6·25 최대 격전지인 다부동 전투 현장을 찾아 옛 전우들의 현재 모습을 그렸다. 구본창 작가는 전쟁 당시 사용된 무기류 등을 대상으로 전쟁의 상흔이 아직도 우리 삶 속에 깊게 패어 있음을 보여준다.

빛바랜 듯한 흑백사진에서부터 톡톡 튀는 디지털 합성사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표현방법이 활용된 이번 사진전은 6·25전쟁을 계기로 한반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작품들은 한국 전시가 끝난 뒤 유엔 참전국들에 감사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참전국 중 전사자가 가장 많았던 미국(9월 7~24일)과 영국(10월 22일~11월 19일)에서도 순회 전시될 예정이다. G

글 · 김민지 기자

국방부 Tel **02-748-5520,**
대림미술관 Tel **02-720-0667**
전시 일정 6월 24일~8월 20일, 오전 10시~오후 6시

“그들 삶 응원하는 게 우리 할 일”

유엔 21개국 해외 참전용사 찍는 사진작가 이병용







이병용 작가는 에티오피아, 터키 등지의 해외 참전용사를 찾아가 사진을 찍었다. 터키에서 만난 참전용사, 전사한 참전용사 할아버지의 사진을 든 에티오피아 소녀, 결혼 6개월 만에 전쟁으로 남편을 잃은 터키의 아이세 할머니 (사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결혼한 지 꼭 6개월 만이었다. 먼 타국으로 떠난 남편이 죽었다고 했다. 전장에서 꼭 살아오겠다던 남편은 주검도 찾을 길 없이 먼지로 사라졌다. 신부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짧지만 행복했던 신혼생활이 꿈처럼 떠올랐다. 그렇게 59년이 흘렀다. 모진 세월이었지만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다.

그와 마주친 사진작가 이병용(53) 씨의 뷰파인더가 점점 흐려졌다. 자꾸만 목이 잠기고 눈물이 맺혔다. 깊게 팬 주름과 슬픈 눈망울만으로 가슴속 깊은 한(恨)을 짐작할 뿐이다. 하지만 미망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자랑스러워요. 어려움에 처한 나라를 도우러 가서 전사한 남편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 씨는 그 순간에야 셔터를 누를 수 있었다.

에티오피아, 터키 등 6·25전쟁에 참가한 유엔군 용사들과 그 가족을 찾아 사진으로 기록하고 있는 이병용 작가. 그는 2007년부터 유엔 21개 참전국은 물론 당시 총을 맞대고 싸운 북한, 중국, 소련의 참전용사까지 모두 만나보겠다는 프로젝트를 세웠다. 이 계획은 운명처럼 그를 찾아왔다.

"2006년 소송 끝에 어렵사리 보험금을 받게 됐어요. 이 돈으로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할까 고민하던 차에 그해 가을 우연히 에티오피아에서 온 참전용사와 그 가족을 만났습니다.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나니 우리가 6·25의 아픔을 너무 쉽게 잊어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해외 참전용사들을 찾아가 그들의 삶을 기록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혼자서 모든 작업을 준비했다. 2007년 4월 18일 에티오피아로 떠나 50일간 머물렀다. 처음엔 늙고 병든 참전용사들 앞에서 눈물이 맺히고 목이 잠겨 촬영 포즈를 요구하지도 못할 정도였다. 그리고 가슴이 미어졌다. 끊임없이 가난을 대물림하는 그들의 고단한 삶 때문이었다.

21개 참전국 모두 돌며 사진 찍을 것

"이게 그곳 벼룩시장에서 사온 훈장들입니다. 목숨 내놓고 싸운 전장에서 받은 유일한 '증거'인데, 형편이 어려우니 끼니라도 때우려고 내다판 거죠. 에티오피아 참전용사들은 참전의 대가로 집과 땅을 얻었지만, 36년 전 일어난 쿠데타로 모든 것을 빼앗겼어요.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준 그들이 이토록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까웠어요."

에티오피아를 다녀온 뒤엔 터키를 두 번째 방문국으로 잡았다. 지금까지도 한국을 형제의 나라로 여기는 참전국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찾아간 터키는 그 후 네 차례나 더 찾았을 만큼 그에게 뜻깊은 나라가 됐다.



조영철 기자

이병용 작가는 "해외 참전용사들을 만나보니 우리가 6·25의 아픔을 너무 쉽게 잊어버린 것 같았다"고 말했다.

"생존한 참전용사들의 삶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목숨 걸고 싸운 전쟁을 기억하고, 남은 삶을 응원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6·25전쟁 70주년이 되는 2020년 이 프로젝트를 완성해 이분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언제까지나 기리고 싶어요."

"터키에선 참전용사들을 아주 명예롭게 예우합니다. 참전용사임을 알리는 표지와 모자를 쓴 할아버지들이 보이면 멀리서도 아이들이 달려와 손등에 키스를 하고 이마를 갖다대며 반갑게 인사를 하죠. 참전용사들도 6·25에 참전한 것을 무척이나 자랑스럽게 여기고요."

6·25는 우리 땅에만 비극을 남기지 않았다. 전 세계 참전용사들의 가족에게도 생이별의 처절한 고통을 남겼다. 결혼 6개월 만에 남편을 잃은 터키의 아이세(83) 할머니 앞에서는 말도 잘 나오지 않았다. 결혼식 사진조차 없는 할머니를 위해 그는 59년 전 전사한 남편의 증명사진을 확대하고 그 옆에 할머니 사진을 넣어 선물했다. 지난 5월, 네 번째로 터키에 갈 때는 남편이 묻혀 있는 부산 유엔공원의 흙을 가져다줬다.

"그나마 생존한 참전용사들의 삶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목숨 걸고 싸운 전쟁을 기억하고 그들의 남은 삶을 응원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앞으로 6·25전쟁 70주년이 되는 2020년 이 프로젝트를 완성해 이분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언제까지나 기리고 싶어요." G

글 · 김민지 기자

"명예 회복된다면 더 바랄 게 없어요"

제2연평해전 유가족들의 이야기

2002년 6월 29일 월드컵 응원의 함성 뒤편에서 해군 제2함대사령부 소속 고속정 참수리 357호가 북한군의 기습공격을 당했다. 우리 장병 6명이 전사하고 18명이 부상했다. 전사자들의 영결식에는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국방부 장관도, 여야 대표들도 참석하지 않았다. 유가족들은 울분을 삼키며 그동안 죽은 듯이 살아왔다. 2008년에야 국가기념행사로 격상해 추모하고 있지만 아직도 완전한 명예회복은 이뤄지지 않았다.

박동혁 병장 부모님의 눈물 "84일 만에 떠나보낸 아들이 '공무상 사망' 이라니…"

고(故) 박동혁 병장은 고교 시절부터 남몰래 시를 쓰던 마냥 밝고 책임감이 강한 청년이었다. 2000년 원광보건대 치기공과에 입학해 자신의 치기공소를 차리겠다는 꿈을 갖고 있었다. 대학 때는 식당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으로 아버지에게 건강보조식품을 선물하기도 했던 효자였다. 2001년 2월 해군병 4백56기로 입대했다.

"9시간 동안의 대수술이었습니다. 왼쪽 다리의 대동맥이 끊겼습니다. 오른쪽 어깨에 총알이, 복부 등에 포탄 파편 1백여 개가 박혔습니다. 소장 7군데를 꿰맸고 대장은 모두 망가졌습니다. 척추에도 파편이 박혀 있고, 출혈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2002년 6월 30일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서 수술을



고 박동혁 병장의 아버지 박남준 씨와 어머니 이경진 씨는 강원 홍천군 동면 자택에 아들을 추모하는 방을 마련했다.

마치고 나온 의무장교가 박동혁 병장의 수술 경과를 설명하는 동안 어머니 이경진(54) 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 아들의 몸에서는 피비린내와 화약 냄새가 진동했다. 팽팽하게 부어오른 배와 다리, 시커멓게 그을린 몸. 이 씨는 붕대로 칭칭 감긴 이 청년이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나는 죽어도 좋으니 차라리 내 대장을 동혁이에게 이식해줄 수 없을까요?”라며 매달리는 어머니에게 의사는 말없이 고개를 가로저었다.

박 병장은 제2연평해전 당시 해군 제2함대 고속정 참수리 357호의 의무병이었다. 북한 경비정의 기습공격을 받고 적탄이 쏟아지는 함정 위에서 부상한 전우들을 돌보다가 그도 끝내 총탄과 포탄 파편 세례를 받았다.

박 병장은 입원 사흘째 의식이 희미하게 돌아왔다가 다음 날 갑자기 심장박동이 멈췄으나 심폐소생술로 간신히 되살아났다. 의료진은 “의식을 찾으면 고통과 부상의 충격으로 쇼크사할 수 있다”며 “수면제를 투여해 박 병장을 재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입원 열흘 만에 의료진은 피가 통하지 않아 썩고 있는 박 병장의 왼쪽 허벅지를 절단했다. 뱃속의 포탄 파편엔 손도 대지 못했다. 그래도 이 씨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아들이 퇴원하면 요양시키려고, 국민이 모아준 성금으로 강원도의 한 산골에 집터도 마련했다. 입원 한 달이 지나 박 병장이 깨어났다. 박 병장이 왼손으로 다리 쪽을 더듬었다.

“엄마, 잠에서 깨어났더니 다리가 없어져버렸어….”

마침내 박 병장에게 패혈증이 발생했다. 9월 20일 오전 4시, 병원 앞 숙소에 있던 부부에게 박 병장의 병세가 위급하니 급히 와달라는 연락이 왔다.

부상한 전우 돌보다 끝내 치명상 입어

“우리 애를 더는 힘들게 하지 마세요.”

박 병장의 아버지 박남준(54) 씨가 심폐소생술을 하려는 의사의 손을 밀어냈다. 아들을 떠나보내기로 한 것이다. “동혁아! 동혁아!” 이 씨의 통곡이 이어지는 가운데 아버지 박 씨가 깡마른 아들의 코에 한참이나 입을 맞췄다. 부부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84일 동안 아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지어 먹이지 못한 것을 한스러워했다.

최근 강원 홍천군 동면의 자택에서 만난 부부는 나이보다 늙어 보였다.

“우리 부부가 강원도와 무슨 인연이 있겠습니까? 동혁이가 퇴원하면 요양시키려고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산 땅이 여기예요. 컨테이너박스를 1백40만원 주고 사서 들여놓고 7년을 살다가 지난해 11월에 융자를 받아 집을 지었어요.”



제2연평해전에서 부상당한 동료들을 돌보다 전사한 박동혁 병장.

> **소가 우리를 살렸죠. 살아 있는 생명을 돌보는 것이 좋았어요. 날마다 똥 치우고, 씻기고, 털 빗기고. 처음에는 아들 묘가 있는 국립대전현충원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갔지만 요새는 석 달에 한 번만 가요. 소 밥 줘야 하니까.**

부부는 새로 지은 집에 박 병장의 방을 마련해 놓았다. 탁자에 해군기를 깔고 아들의 백일사진, 고등학교 졸업사진, 참수리 고속정 사진 등을 올려놓았다. 아들을 잃은 부부는 전국을 헤맸다.

“한 1년을, 혹시 추억거리라도 있을까 하고 아들과 갔던 곳을 돌아다녔죠. 가면 뭐가 있겠습니까? 허망하더라고요.”

이 씨에게는 우울증과 불면증이 찾아왔다. 2004년 8월 박 씨가 암소 두 마리, 송아지 두 마리를 사왔다. 부부가 사는 컨테이너 위에 비닐하우스를 치고 한쪽에 축사를 만들었다. 지금은 일곱 마리를 키운다.

“소가 우리를 살렸죠. 살아 있는 생명을 돌보는 것이 좋았어요. 날마다 똥 치우고, 씻기고, 털 빗기고. 처음에는 아들 묘가 있는 국립대전현충원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갔지만 요새는 석 달에 한 번만 가요. 소 밥 줘야 하니까.”

이들 부부는 아들의 ‘명예회복’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은 당시 ‘공무상 사망’으로 처리됐다.

“우리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나요?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 전사한 내 아들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해주면 더는 바랄 게 없습니다.”

조천형 중사 가족의 염원 “우리 아빠를 용감한 해군으로 기억해주세요”


조천형 중사의 부인 강정순 씨와 초등학교 2학년인 딸 시은 양.
시은 양이 올해 어버이날 부모님에게 쓴 카드를 들고 있다.

“저 시은이예요. 어버이날 축하해요. 제가 모은 돈으로 학교에서 카네이션을 샀어요. 아빠에게는 못 드려서 죄송해요. 제가 마음속으로 전할게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제2연평해전 때 참수리 357호정에서 함포를 관리하는 병기사로 근무하다 숨진 조천형 중사의 부인 강정순(36) 씨는 올해 어버이날 초등학교 2학년인 딸 시은(8)이한테서 특별한 카드를 받았다. 곱게 접힌 카드에는 시은이가 또박또박 쓴 짧은 편지글과 함께 긴 머리의 엄마와 군복을 입은 아빠가 크레파스로 그려져 있었다.

결혼 반년을 겨우 넘긴 때였다. 울어대는 아기를 안고 정신없이 남편의 3일장을 치르고 나니 모유마저 나오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분유를 먹였다. 자꾸 분유를 토해내다 장염에 걸린 아기를 들쳐 업고 늦은 밤 병원으로 뛰어가며 강 씨는 곁에 남편이 없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가장을 잃은 강 씨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백방으로 일자리를 알아봤다. 첫 직장은 대전의 한 백화점. 그전까지 살림만 하던 강 씨는 아이를 친정어머니에게 맡기고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판매원으로 일했다.

허리디스크가 생겨 1년여 만에 백화점을 그만두고는 대전 국가보훈처 직원의 조언으로 자격증에 도전하기 시작했다. 아기를 돌보면서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정보처리기능사 공부에 몰두했다. 결국 보훈처의 추천으로 2004년 정부대전청사에 계약직으로 취직했고 이듬해인 2005년엔 대전 서구 기능직 10급 공무원으로 채용됐다.

직장을 얻은 뒤에도 쉬지 않았다. 2006년부터 퇴근 후 시간을 이용해 대덕대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해 2년 뒤에는 한밭대 경영학과에 편입했다. 오후 6시에 퇴근을 하면 학교에 가 수업을 듣고, 집에 들어오면 10시를 훌쩍 넘긴 시간이지만 집에서도 시은이 공부를 봐주며 과제를 위해 책을 폈다. 올해 2월 그는 경영학과 학사학위를 받았다. 강 씨는 조만간 또 공부를 시작할 계획이다. 사회복지학 공부를 다시 해 복지사로 어려운 이들을 돌보고 싶다는 포부다.

“우리 아빠는 해군이셨는데 전사하셨어요”

강 씨가 그나마 다행스럽게 여기는 점은 딸 시은이의 가슴속에 아빠가 굳건히 남아 있다는 것이다. 유치원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우리 아빠는 왜 와서 달리기 같이 안 하느냐”며 운동회 때마다 엄마를 가슴 아프게 했다. 하지만 이제 주변에서 “아버지는 뭐 하시니”라고 물으면 “우리 아빠는 해군이셨는데 전사하셨어요”라고 당당하게 답한다.

“한번은 시은이가 손을 잡고 경비실로 가더니 경비 아저씨를 소개해주더라고요. 경비 아저씨도 해군이라고….”

제2연평해전으로 조천형 중사를 잃은 어머니 임헌순 씨가 조 중사의 사진을 품고 있다.



시은이의 학교 친구들도 시은이 아빠가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해군이라는 사실을 모두 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시은이가 친구들에게 설명을 해줬기 때문이다.

강 씨는 시은이를 위해서라도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에 대한 예우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다. “시은이가 아빠를 외면당한 해군이 아니라 용감하게 싸우다 간 ‘전사자’로 기억할 수 있어야 해요.”

윤영하 소령 아버지의 소원 "군인에게 '전사'보다 명예로운 일은 없는데…"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울지 않았다. 아들이 세상을 떠났다는 '벼락같은' 소식을 들었던 2002년 6월 29일 그날도, 이틀 뒤 치러진 아들의 영결식에서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통곡할 만한 일은 많았다. 아들과 함께 전사한 고(故) 한상국 중사의 시신은 사고 발생 41일 만에 배와 함께 찾았다. "분하고, 억울하고, 화가 나서,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다"고 그는 한 단어씩 끊어서 말했다.

8년이 지났고 아버지는 달라졌다. "사고 처리 후부터 뜻하지 않은 순간에 눈물이 나온다"고 말했다. 절에서 아들을 추모하다, 집에서 아들의 기사를 읽다, 갑자기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인터뷰를 하는 도중에도 그는 꼿꼿한 자세와 고집스런 눈매 그대로 죽은 아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울었다. 2002년 제2차 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고 윤영하 소령 아버지 윤두호 씨(68) 이야기다.

윤영하 소령이 해군사관학교에 진학해 군인의 길을 걸었던 데는 아버지 윤 씨의 영향이 컸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군인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다. 설령 전사하더라도 나라가 너와 너의 가족들을 보살펴줄 것이다"라고 말하곤 했다.

"1999년 제1차 연평해전에서 우리 군이 대승을 했으니 분명 어떤 식으로든 북한군의 보복이 있을 것이란 생각은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마 북한군이 기습을 해올 테니 우리 해군의 피해가 클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그는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당시의 상황을 말했다. 우리 군의 '피해'에 아들의 죽음도 포함된 심정은 어땠을까. 윤 씨는 '명예'를 말했다. 억울함도, 슬픔도 아닌 명예였다. 그는 "군인은 언제든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라며 "전사 이상으로 군인에게 명예로운 일은 없다"고 말했다. 아들은 죽었지만 그 죽음이 명예로운 것이었다는 사실이 지금까지 윤 씨가 버틸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

'명예로운 죽음'이라 생각하고 버텨

하지만 당시 대통령과 정부의 태도가 안타까웠다. 윤 씨의 처지에서는 더 이상 '국가의 태도'가 아니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제2연평해전이 벌어진 2002년 6월 29일 바로 다음 날 일본으로 출국했다. 월드컵 공동 개최국 정상 자격으로 일본에서 열리는 결승전에 참가하기 위해서였지만 윤 씨는 국군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의 출국에 문제가 있다며 한 가지 소원을 말했다. 언제가 되든 제2연평해전 사망자들의 공식 추모식에 대통령이 한 번이라도 참석했으면 좋겠다는 것. 2002년 영결식엔 대통령,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 모두 오지 않았다. 정치인들도 거의 오지 않았다. 참석자는 전두환 전 대통령, 손학규 전 경기지사, 장정길 해군참모총장 등이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책임진다는 의사를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이 죽은 영결식에는 국가를 대표하는 어느 누구도 오지 않았습니다." G

글 · 조종엽 장윤정 박재명(동아일보 사회부 기자) / 사진 · 동아DB



윤영하 소령의 아버지 윤두호 씨와 어머니 황덕희 씨가
아들의 유품을 매만지고 있다.

마흔여섯 넋이여, 편히 쉬소서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첫 현충일

천안함 마흔여섯 용사를 떠나 보내고 맞은 첫번째 현충일. 유가족들과 많은 국민이 그들을 가슴속에서 되살려냈다. 국립대전현충원에 자리한 '천안함 고 46용사 묘역'이나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의 추모비를 찾은 이들은 조국의 바다에 푸른 젊음을 바친 이들의 희생을 잊지 않겠노라고, 비문(碑文)의 글씨만큼이나 단단하게 가슴속 깊이 새겨넣었다.

조영철 기자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내 천안함 추모비 앞에서 한 가족이 향불을 피우고 있다.

현충일인 지난 6월 6일 오전 6시 반, 국립대전현충원 내 '천안함 고 46용사 묘역'을 천안함 피격사건 전사자 유가족들이 다시 찾았다. 지난 4월 29일 경기 평택시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전 국민의 눈물 속에 천안함 46용사의 영결식이 치러진 지 한 달 여 만이다.

내 아들을, 내 남편을, 내 아우, 내 형을 가슴에, 그리고 그들의 젊음만큼이나 푸른 풀 아래 묻고 맞은 첫 번째 현충일이다. 사방이 꽃이었지만 어머니는 묘비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떨궜고, 아버지는 아들의 뺨인 양 묘비를 쓰다듬었다. 실감 나지 않는 남편의 묘비, 현실 같지 않은 형제의 묘비 앞에 서서 가슴 먹먹해하던 유가족들은 묘비 앞에 놓인 꽃이며 태극기들 사이에 놓인 유치원생들의 편지를 읽으며 천진난만한 글에 다시금 눈물을 흘렸다.

평소 고인이 좋아하던 과일이며 과자를 묘비 앞에 놓고 유가족들이 슬픔에 젖은 가운데 고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 윤청자(67) 씨는 일본 로봇만화 건담의 프라모델을 선물로 내놓았다. 민 상사가 생전에 부대에서 조립한 것을 해군 2함대사령부로부터 유품으로 전달받은 것이다.

유가족 '천안함재단' 설립키로

가족과 더불어 누구보다 그들의 생환을 기원했던 최원일(43·중령) 천안함 함장과 생존 장병 20여 명도 김성찬 해군참모총장과 함께 46용사 묘역을 참배했다.

제2연평해전 생존 장병 6명도 고 박경수 상사의 아버지 박종규(62) 씨 등 유족들과 만나 인사를 올렸다. 매년 현충일 연평해전 전사자들을 조문해온 이들은 제2연평해전에 참가했던 박 상사의 묘비 앞에서 "올해도 함께 왔어야 할 자네가 왜 여기 누워 있느냐"며 침통해했다. 인근 장교묘역에 자리한 한주호 준위 묘지에는 해군특수전여단(UDT) 동기생이 보낸 조화 등이 한 준위의 고결한 희생정신을 기렸다.

천안함 유가족과 생존 장병 외에도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참배객들로 붐빈 46용사 묘역은 대전현충원 내 어느 묘역보다 깨끗했다. 조성된 지 얼마 되지 않기도 했지만, 고 임재엽 중사 어머니 강금옥(56·대전 가양동) 씨가 매일 묘역을 청소하기 때문이다.

임 중사의 어머니는 천안함 희생 장병들이 현충원에 안장된 이후 매일 오전 이곳을 찾아 '46명 모두 내 아들'이란 마음으로 46개의 묘비를 일일이 닦아주고 있다. 임 중사 어머니는 특히 현충일 아침에는 더욱 서둘러 참배객이 오기 전 이른 새벽부터 묘비들을 닦고 꽃에 물을 줬다. 주변의 지저분한 쓰레기까지 치우고 나면 보통 2시간이 걸리지만 신성한 의식(儀式)과 같은 묘비 청소는 매일 이어진다.


동아DB

손을 뻗으면 너를 만질 수 있을까. 국립대전현충원 '천안함 고 46용사 묘역'을 찾은 유족들이 묘비를 쓰다듬고 있다.

고 문규석 상사의 매형인 박형준(38) 천안함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우리 유가족 모두 마치 자신의 가족처럼 다른 묘비를 돌보는 임 중사 어머니의 노고에 무척 감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은 오랫동안 실종자 수색과 인양, 장례 등을 지켜보며 일상을 버리고 슬픔에 매달려야 했다. 현충일을 맞아 가슴에 쌓인 슬픔을 다시 한 번 쏟아낸 유가족들은 오는 7월 4일 1백일 추모제를 끝으로 천안함 유가족협의회를 해산하게 된다.

대전현충원 참배객·자원봉사자 발길 늘어

해산에 앞서 유가족들은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마치 내 가족의 일처럼 한마음으로 실종 병사들의 생환을 기도하고 따뜻한 위로를 아끼지 않은 국민들에 대해 감사를 잊지 않았다.

천안함 유가족협의회는 6월 11일 서울 대방동 해군회관에서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란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천안함 성금을 기탁한 31개 단체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유가족협의회는 이날 성명에서 "국민 여러분의 진심어린 위로와 따뜻한 격려가 없었더라면 절망적인 슬픔과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을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들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셨기에 힘을 낼 수 있었고 천안함 46용사들을 편안히 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유가족협의회는 "국민 성금은 기탁하신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관리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국민 성금은 천안함 장병, 한주호 준위, 금양호 선원들의 유가족에게 지원되는 위로금과 추모사업, 호국정신 선양사업, 기타 유족 지원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동아DB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근해에서 전사'라는 묘비명. 태어난 일시는 달랐지만 한날한시 푸른 파도에 스러진 이들이 잠들어 있다.

유가족협의회는 이어 "투명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거쳐 북한의 천인공노할 만행임이 밝혀졌는데도 아직 일부에선 각종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며 "이제는 천안함 사고원인에 대한 무책임한 의혹 제기와 소모적 논쟁을 자제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유가족협의회는 특히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 천안함 46용사와 유가족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천안함 사고의 재발 대비에 힘을 모으고 천안함 사고로 전우를 잃은 해군장병, 나아가 국군장병 모두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배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호국의 숭고한 가치 잊지 않았으면"

천안함 유가족들은 또 "군 당국과 함께 앞으로 세울 추모비, 추모공원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1백일 추모제 이후에는 지금의 유족협의회를 해산하는 대신 실무진을 다시 선발해 지속적으로 모임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천안함 46용사 유가족 모임에 생존 장병 58명을 포함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천안함 피격사건은 이들 유가족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남기고 국민 모두에게 크나큰 슬픔을 줬지만, 나라를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에 대한 관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있다.

"천안함 피격사건은 유가족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남기고 국민 모두에게 크나큰 슬픔을 줬지만, 나라를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에 대한 관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있다."

대전현충원의 경우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어린 학생부터 청소년, 가족 단위 자원봉사자들의 발길이 예년보다 크게 늘었다. 현충일을 앞둔 지난해 5월 대전현충원을 찾은 자원봉사자는 모두 3천3백86명이었으나 올 5월에는 3천8백53명으로 4백67명(약 14퍼센트)이 늘었다.

자원봉사자뿐 아니라 학생, 군인, 시민들의 방문이 증가함에 따라 대전현충원은 방문객의 교통편의를 위해 무료 묘역 순환차량인 '참배객 모시미(15인승)'의 운행을 6월 7일부터 '1시간 간격'에서 '30분 간격'으로 확대했다.

권율정 대전현충원장은 "참배객 모시미를 이용하는 많은 방문객들이 외지에서 오는 연로한 분들"이라며 "방문객들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해 교통체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은 지난 6월 6일 하루 1만2천2백38명의 관람객이 찾아 역대 현충일 관람객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1994년 개관한 전쟁기념관의 현충일 관람객 이전 최고 기록은 지난해의 1만1천8백56명이었다. 또 이날 전쟁기념



관에서 열린 '전국 학생 그림그리기 대회'에는 많은 가족 관람객들이 현충일의 의미를 기려 참가했다.

전쟁기념관 기획홍보부 이경환 문화홍보팀장은 "올해부터 대학입시에서 미술대회 수상경력이 제외돼 단체참가가 지난해보다 대폭 줄었다"며 "이에 따라 대회 참가자 수는 지난해(약 1천명)보다 적은 8백명가량이지만 이들 대부분이 오히려 순수하게 현충일의 의미를 살리고자 가족 단위로 온 참가자들이어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전쟁기념관 역대 현충일 관람객 최고 기록 세워

자라나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호국선열들의 나라사랑 정신과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해 마련된 전쟁기념관 그림그리기 대회 참가 학생들은 옥내외 전시실을 관람하고 느낀 것을 다양한 기법과 아이디어로 도화지에 표현했다. 이른 여름 더위를 피해 전쟁기념관 전시실 좌우 회랑에서 돗자리를 펴놓고 진지한 표정으로 그림그리기에 열중하고 있는 학생들 그림 가운데에는 참수리호 등 군함, 해군과 관련한 그림이 유독 많았다.

이날 전시실의 좌우 회랑에 도열한 추모비들 앞에 흰색 국화가 놓인 가운데 특히 천안함 추모비 앞에는 유독 많은 흰 국화가 놓여 있었다. 아이들 손을 잡고 나들이 온 부모들은 천안함 추모비를 찾아 가까이 놓인 향로에 향불을 피웠다.

천안함 생존 장병들, 슬픔 딛고 현업 복귀

본인 희망 따라 발령·전역

'살아남은 자의 슬픔'을 가슴에 깊이 간직한 천안함 생존 장병들이 현업으로 복귀했다.

해군 제2함대사령부는 6월 7, 8일 이틀간 천안함 생존 장병 58명 중 55명을 본인들의 희망에 따라 발령했다. 발령받지 않은 천안함 생존 장병 3명 중 2명은 전역했으며, 생존자 가운데 부상이 가장 심각했던 신은총(24) 하사는 다리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국군 수도병원에 입원 중이다.

최원일 함장은 대전 해군본부 전력분석시험평가단으로 발령받았으며, 이채권(28) 대위 등 10명은 천안함 퇴역 관리 업무를 희망했다. 이들은 천안함 퇴역작업이 공식적으로 완료되면 다시 발령받게 된다. 또 박연수(27) 대위와 허순행(38) 상사 등 7명은 해군 2함대와 2함대 예하 인천해역방어사령부에 발령받았고, 나머지 승조원들도 본인의 희망에 따라 진해 해군본부나 부산 작전사령부, 목포 3함대, 동해 1함대 등지로 배치됐다.

해군 제2함대사령부 정훈공보실 이재호(중위) 공보과장은 "천안함 생존 장병들에 대한 발령은 모두 본인 희망에 따라 이뤄졌다"며 "지금은 천안함이 국방부 민군합동조사단 소속으로 돼있어 퇴역작업이 언제 끝날지 일정이 확실하진 않지만, 천안함 생존 장병들의 손으로 퇴역 작업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충일을 맞아 46용사 묘역을 찾은 최원일 함장과 생존 장병들이 눈물짓고 있다.



동아DB

아내, 초등학생 아들 둘과 함께 전쟁기념관을 찾은 이주철(43·서울 노원구 월계동) 씨 가족도 경건한 표정으로 천안함 추모비 앞 향로에 향불을 피웠다. 이 씨는 "천안함 피격사건을 계기로 아이들에게 호국의 의미와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고 싶어 전쟁 기념 그림그리기 대회에 참가했다"고 말했다.

"천안함 46용사와 함께 호국의 숭고한 가치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뿐 아니라 많은 이들이 항상 기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G

글·박경아 기자

‘殺身成仁’ 전시·평시가 따로 없다

훈련·작전 중 부하 살리고 희생한 용사들

훈련병이 수류탄을 떨어뜨리자 부하들을 살리기 위해 수류탄에 몸을 던진 고(故) 강재구 소령을 기억하는가. 살신성인(殺身成仁)의 군인정신은 전시(戰時)에만 발휘되는 게 아니다. 평시 작전임무나 훈련 과정, 혹은 예상치 못한 사고 때 국가와 부하, 동료들을 위해 자신의 몸을 기꺼이 던진 고귀한 희생 또한 귀감이 되고 있다.

“제가 사고 때 다치지 않았다고 해도 지금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진 못할 겁니다.”

육군대학 전략학처 작전술 교관인 이종명 대령(육사 39기)은 10년 전 지뢰 사고를 떠올리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의 말에서 사고 당시 상황과 다시 마주쳐도 같은 선택을 할 것이라는 결연한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2000년 6월 27일 육군 전진부대 수색대대장이던 이 대령(당시 중령)은 보직 인수인계를 열흘 앞두고, 마지막으로 후임 대대장과 비무장지대 내 상황을 둘러보기 위해 수색팀 병사들을 이끌고 정찰에 나섰다가 지뢰 사고로 두 다리와 오른손 손가락 세 개를 잃었다. 군사분계선 10여 미터 앞에서 대인 지뢰를 밟고 큰 부상을 입은 후임 대대장을 구조하다 자신도 지뢰를 밟은 것.

지뢰 밟은 후임 구하고 부상 입은 이종명 대령

그가 살신성인의 군인정신을 발휘한 덕분에 연쇄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이 대령은 함께 군사분계선에 근접해 정찰하던 후임 대대장과 중대장이 첫 번째 지뢰 사고로 쓰러지자 사고 지점 30~40미터 후방의 안전지대에 대기하던 소대장과 병사들의 접근을 막았다. 자신도 파편상을 입었지만 침착



비무장지대 수색 작전(2000년 6월)에서 지뢰폭발 사고로 양 다리를 잃은 이종명 대령에게 당시 3야전군사령관이 훈장을 수여하고 있다.




◀ 고압 전류에 감전된 병사를 살려낸 뒤 강한 전기 충격을 받고 순직한 고 김칠섭 중령의 빈소.
▶ 어린이날 기념 에어쇼를 펼치다 추락 위기에 처하자 민가와 관람객의 안전을 위해 끝까지 조종간을 잡고 산화한 고 김도현 소령의 영결식.

한 태도로 소대장에게 병사 통제와 상부 보고, 헬기 구조 요청을 지시한 뒤 위험을 무릅쓰고 사고 지점으로 접근했다.

그렇게 부하들을 뒤로하고 홀로 후임 대대장을 구조해 나오려는 순간 그의 발밑에서도 지뢰가 터졌다. 그 상황에서도 이 대령은 병사들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제지한 뒤 후임 대대장을 부축했다.

"후임 대대장을 부축하기 위해 손을 땅에 짚었는데 바로 고꾸라지는 겁니다. 손목 관절이 날아가버린 것 같았어요. 어떻게든 빨리 빠져나가야겠다 싶어서 결국은 팔꿈치로 기어나왔습니다."

다리와 손이 날아간 응급 상황이었지만 이 대령은 끝까지 의식을 잃지 않고 안전한 곳으로 빠져나왔다. 사고 후 양쪽 발목을 잃고 오른쪽 무릎까지 절단 수술을 받은 이 대령은 사고 현장에 있던 병사들에게 오히려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 그는 "병원에 후송되기 전 병사들이 상처 보호를 잘해서 추가 응급조치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말을 군의관으로부터 들었다"며 오히려 자신이 은혜를 입었다고 했다.

10년 전 자신의 선택이 후회스럽진 않을까. 그때 상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면 몸을 상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천만에요. 제가 나서지 않았으면 또 몇 명의 부하가 더 다쳤을지도 모르죠. 만약 그랬다면 그 죄책감에 어찌 하루하루를 제대로 보냈겠습니까. 정상적인 생활은 도저히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또 그런 상황이 와도 같은 선택을 할 겁니다."

2004년 11월 고압 전선에 감전된 병사를 구하고 자신은 감전돼 순직한 고 김칠섭 중령(학군 30기·사고 당시 소령)도 살신성인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그는 극진한 부하 사랑을 목숨과 바꿨다.

사고는 육군 12사단 을지부대에서 대대전술훈련을 마친 통신병이 10.7미터 길이의 안테나를 지상에서 철거하려다 고압선에 안테나가 닿아 감전되면서 일어났다. 다행히 통신병은 큰 부상을 입지 않았지만, 안테나선을 따라 흐른 고압 전류가 대대 상황실 텐트 내 무전기로 흘러들면서 이를 점검하던 또 다른 통신병도 감전됐다. 이때 무전기를 놓지 않고 몸을 떨고 있는 통신병을 본 김 중령은 부하를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아무런 보호장치도 없는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병사의 허리를 잡아당기며 손에서 장비를 떼어냈다.

감전된 병사 밀어내고 순직한 고 김칠섭 중령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고압 전류가 김 중령에게 흘러 목숨을 잃었다. 통신병은 손가락 부상만 입는 데 그쳤지만 김 중령은 심장 부위에 2만3천 볼트의 강한 전기 충격을 받고 쓰러져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김 중령이 근무했던 육군 12사단과 그를 배출한 동신대 학군단은 김 중령의 흉상을 제막해 매년 추모 행사를 열고 있다. 김 중령의 학군단 동기인 김명식 씨는 "학군 시절에도 후배들을 챙기는 일에 앞장섰고, 군 복무 때는 포용력이 남달라 병사들에게 신망이 두터웠다"고 김 중령을 떠올렸다.

이 밖에 2006년 5월 5일 어린이날 기념 에어쇼를 펼치다 추락 위기에 처하자 비상탈출을 하지 않고 민가와 관람객 피해를 막기 위해 조종간을 끝까지 잡은 채 산화한 공군 제8전투비행단 고 김도현 소령, 2004년 동해상 심야훈련 중 높은 파도와 침수로부터 특수 선박을 끝까지 지키려다 참변을 당한 이기주, 양영식, 오길영 상사 등 4명의 해군 부사관들도 영원히 귀감이 될 평시의 용사들이다. G

글 · 유재영 기자

"군복 입고 나가면 다들 고마워하죠"

순국용사 희생정신 기리는 사회… 美 해병대박물관을 가다

미국 버지니아주에 있는 국립해병대박물관은 미국 해병대의 역사를 생생하게 재현하고 있는 곳이다. 박물관 내 제2차 세계대전기념관, 한국전쟁기념관, 베트남전쟁기념관은 퇴역군인들에게는 명예의 전당이자, 청소년들에게 전쟁의 참상을 알리는 생생한 교육현장이다.

미국 버지니아주 콴티코 해병기지 근처 울창한 숲 사이로 비스듬히 쓰러져 있는 듯 독특한 디자인의 현대식 건물이 눈에 띈다. 2006년 문을 연 국립해병대박물관(National Museum of the Marine Corps)이다. 건물이 옆으로 기울게 디자인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인 1945년 2월 5천9백31명의 미 해병대원들이 전사한 일본 이오지마 전투를 기리기 위해서다. 쓰러져가는 성조기를 힘겹게 세우는 미 해병의 모습을 본뜬 국립해병대박물관의 상징이다.

크리스마스만 빼고 1년 내내 개관하는 이곳은 초중고생들에겐 전쟁의 참상을 알리는 생생한 교육현장이다. 또 머리가 허옇게 바래버린 퇴역군인들이 가족과 함께 자주 찾는 곳이기도 하다.

국립해병대박물관에선 1775년 발족한 미 해병대 역사를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다. 11만1천 평방피트를 차지하는 광활한 곳에 터를 잡은 해병대박물관은 부지를 20만 평방피트로 늘리기 위한 공사가 한창이다. 미 해병 헤리티지재단이 앞장서 건립을 주도하고 대기업을 비롯해 재단과 개인들로부터 6천만 달러를 모금해 박물관을 완공했다. 운영은 정부가 맡고 있지만, 재원은 대부분 민간에서 조달하고 있다.



미국 버지니아주에 있는 프랭클린 셔먼 초등학교 1학년 학급에서 아이들이 첫 수업 전에 국가에 대한 맹세를 하고 있다.

박물관을 둘러싼 기념공원에 들어서면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Once a Marine, Always a Marine)'이라고 새겨진 큼지막한 조각판이 눈에 띈다. 주변을 둘러싼 벽돌에는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베트남전쟁에서 전사한 해병들의 이름과 이들을 추모하는 글이 빼곡하게 적혀 있다.

대기업·개인 모금으로 설립… 운영재원도 민간 조달

여자 해병 출신으로 박물관 홍보책임을 맡고 있는 아담스씨는 "벽돌 한 장에 이름을 새기려면 2백 달러가 든다"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에 동참해 박물관 운영재원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입구에서 관람객들에게 박물관 안내지도를 나눠주던 블랙 병장은 "해병 복장을 하고 밖에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고마움을 표시한다"며 "식당에 가면 공짜로 음료수를 주기도 하고, 아예 식비를 받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해병은 자유와 권리를 위해 가장 먼저 나서 싸운다.'

박물관에 들어서면 바로 마주치게 되는 전시관에 걸려 있는 문구다. 이곳에선 해병대 입소 과정을 입체적으로 보여준다. 머리를 짧게 깎고 힘찬 구령을 외치는 해병 지원자들이 수송 버스를 타는 장면이 실물 크기 조각상과 함께 비디오 화면에 생생하게 나온다. 마이크에서 울려퍼지는 요란한 복창 소리 때문에 실제 해병대 입소식에 온 듯하다.

박물관에는 미 해병대의 활약상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기념관이 3개 있다. 2차 세계대전기념관과 한국전쟁기념관, 그리고 베트남전쟁기념관은 당시 치열했던 전투상황을 생생하게 담고 있다. 일본 이오지마 전투는 미 해병대뿐 아니라 세계전쟁사에서도 큰 기록으로 남아 있다. 2차 세계대전기념관에는 당시 전사한 해병 5천9백31명의 계급장 배지가 전



미국 국립해병대박물관에는 1775년 미 해병대 창설 이후 전쟁에서 탁월한 공을 쌓아 '명예의 메달'을 받은 해병 영웅들의 사진이 전시돼 있다.

시돼 있다.

아담스 씨는 "사상 최악의 이오지마 전투에서 전사한 미 해병의 넋을 기리기 위해 이들이 착용한 것과 똑같은 모양의 계급장 배지를 전시했다"고 말했다.

"손과 발이 꽁꽁 얼어 모두 마비가 됐다. 뼈끝에 사무치는 추위가 엄습했다. 그렇게 많이 떤 것은 처음이었다."

6·25전쟁에 참전한 미 7해병대 소속의 조지프 오언 중위가 남긴 글이다. 한국전쟁기념관에는 엄동설한에 10만명의 중공군이 미 해병 2만명을 공격한 '창진 전투'를 실감 나게 재현해 놓았다. 기념관에 들어서면 당시 살을 에는 추위를 관람객들이 느끼도록 하기 위해 찬 공기가 나온다. 인해전술에 나선 중공군에 고군분투하는 미 해병의 모습을 담고 있다.

당시 1해병대 소속의 전투기 조종사인 더글러스 윙은 "어떤 해병도 이처럼 열악한 기후에서 싸워본 적이 없었다"고 적었다. 6·25전쟁에서 전사한 미 해병은 4천2백67명, 부상자는 2만3천7백44명이다.

"이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미국은 없었을 것"

박물관 로비 중앙에는 전쟁에서 탁월한 공을 쌓아 대통령에게 명예의 메달(Medal of Honor)을 받은 해병들의 사진이 빼곡히 전시돼 있다. 1775년 미 해병대 창설 이후 명예의 메달을 받은 해병들의 사진이 모두 걸려 있다.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및 베트남전쟁 당시 이 메달을 받은 해병이 많았지만, 1974년 이후 명예의 메달을 받은 해병은 단 한 명뿐이다.

> **입구에서 관람객들에게 박물관 안내지도를 나눠주던 블랙 병장은 "해병 복장을 하고 밖에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고마움을 표시한다"며 "식당에 가면 공짜로 음료수를 주기도 하고, 아예 식비를 받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부인과 함께 콜로라도에서 올라온 노년의 한 신사는 기자에게 "1964년부터 1972년까지 미 공군에 복무하면서 한국, 일본, 베트남, 태국을 돌아다녔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1968년 9개월 동안 한국 군산에서 헬리콥터 구조 등 한국군 지원활동을 했는데, 그때도 한국전쟁은 사실상 끝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며 "이곳에 와보니 당시 기억이 너무 생생하다"고 말했다.

박물관에서 만난 테런스 루이스 예비역 소령은 23년 동안 미 육군에 복무하다 지금은 워싱턴 공립고교인 IDEA군사아카데미 교감으로 일하고 있다.

학생들의 박물관 방문을 위해 현지답사를 온 루이스 씨는 "1973년부터 1996년까지 육군 보병으로 복무하면서 쿠웨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 파나마 등지에서 특공대로 뛰었다"며 "나라를 위해 큰 희생을 한 이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미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 해병의 역사는 바로 미국의 역사"라고 강조했다. G

글과 사진 · 최영해(동아일보 워싱턴 특파원)



1

어의(御醫)를 들라 하라~

창덕궁 내의원 '체험하는 전통 한의학' 문전성시

"우리나라 의사는 청진기를 대고 진찰합니다. 그런데 이곳 의사는 어떻게 제 손목만 잡고 아픈 곳들을 꼭꼭 짚어줄 수 있나요? (한의사의) 살과 (제) 살이 맞닿는 순간, 아프지 않을 거란 확신도 들었어요."

지난 5월 마지막 주 목요일. 창덕궁 내의원(內醫院)에서 폴란드인 토마슈 퓌르츠(33) 씨가 연신 "브라보(Bravo)!"를 외쳤다. 그는 여행을 하면서 생긴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던 참이었다. 그런데 내의원에서 침과 뜸 치료를 받자마자 온몸이 풀리는 시원한 기분을 느낄 수 있었다.

퓌르츠 씨에게 특별한 경험이 된 이 프로그램은 창덕궁 내의원이 처음 실시한 '창덕궁 내의원에서 만나는 한의학 체험-어의를 만나다'.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리고 우리 궁궐을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 문화재청 창덕궁관리소, 대한한의사협회 등이 뜻을 모아 이 행사를 마련했다.

옛 모습 재현… 1, 2시간 전부터 "줄을 서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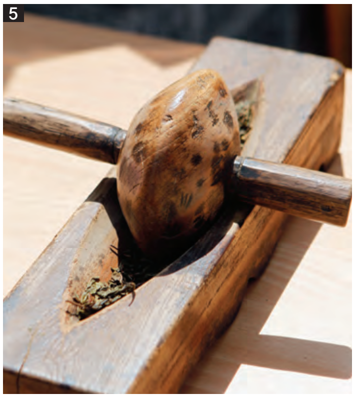
창덕궁 내의원은 조선시대에 궁중의 의약(醫藥)업무를 맡아보던 관아. 이번 행사를 위해 창덕궁 내의원의 옛 모습이 그대로 재현됐다. 약장과 약재, 침구류, 경혈도 등 장비와 시설을 복원했고 전통 의관 복장을 고증해 한의사, 간호사, 통역 자원봉사자들에게 입혔다. 심도 있는 진료를 위해 한방 치료 인원은 하루 40명(내국인 20명, 외국인 20명)으로 정했다.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하는데 오래전부터 입소문이 나 행사 시작 1, 2시간 전부터 와서 기다리는 관람객도 많다. 접











1 전통 어의 복장을 차려입은 한의사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침을 놔주고 있다.
2 매주 목요일 오후 1시반부터 진행되는 한의학 체험 프로그램은 내외국인 관광객들로 문전성시다.
3 한지에 여러 가지 한약재를 싸보는 약첩 싸기는 직접 만들어본 후 가져갈 수 있다.
4 5 예부터 한약 만들 때 사용하던 기구들. 약맷돌(왼쪽)과 약연(오른쪽)으로 약재를 갈아 약을 만들었다.
6 이 행사는 심도 있는 한방 치료를 위해 하루 선착순 4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외국인 관람객을 위한 통역 서비스가 마련돼 있어 진료받는 데 불편함이 없다.

수 후 순서에 따라 대기하면 간호사가 건강 상태를 점검해 알려주고 이에 맞는 침, 뜸, 부항 등 한방 치료가 진행된다. 단순한 체험 행사지만 증상에 따라 탕약 처방도 해주고 외국인 관람객에게는 통역사가 일대일로 한의학 지식을 세심하게 설명해준다.

내의원 마당 한편에 마련된 한의학 체험 프로그램도 인기다. 약첩싸기, 약맷돌과 약절구 등을 이용해 약 갈아보기, 동의보감 속 그림 스크래치하기, 한방 차 마시기 등 남녀노소 모두 쉽게 배울 수 있는 코너들이 준비돼 한의학에 대한 관심을 높인다.

행사 기간은 6월 24일까지(1차), 9월 2일~10월 28일(2차, 추석연휴 9월 23일 제외), 진료 일시는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30분~5시. G

글 · 김민지 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문화재청 창덕궁관리소 Tel 02-3676-3402 창덕궁 홈페이지 cdg.go.kr

풍수학자 최창조 교수가 본 4대강

"4대강살리기는 중태 빠진 어머니 치료"

풍수는 자연을 어머니로 본다. 4대강살리기는 중태에 빠진 어머니를 치료하자는 것이다. 치료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부작용 때문에 치료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풍수는 치료를 강하게 주장한다. 풍수는 치유(治癒)의 지리학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대개 풍수를 '묏자리 잡는 술법', '집터 잡는 기술', '조상들의 지리 지혜', '전통적인 환경사상'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모두가 풍수의 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정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풍수는 미신도 과학도 아닌 상식에 바탕을 둔 지혜라고 할 수 있다. 풍수는 땅의 기를 살펴 땅의 성격을 읽어내고, 땅과 인간이 어떻게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살피는 것이다. 풍수는 서구적인 지리 전통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하고 정교한 이론 체계다. 우리 선인들은 풍수적인 사고를 통해 환경을 인식했고 장소에 질서를 부여했다. 그리고 풍수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조화롭게 처리하는 방식으로서 우리의 공간 속에 투영돼 왔다.

풍수의 논리구조는 인간이 생명력의 흐름인 땅의 생기(生氣)를 받아 사람과 삶터의 생명력과 건강성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땅은 저마다 독특한 성격을 가졌다. 산이 많은 곳, 들이 너른 곳, 지대가 높거나 낮은 곳 등 사람의 성격만큼이나 땅의 생김새와 분위기는 다양하다.

4대강살리기는 반드시 필요한 '치료행위'

땅의 성격을 서로 다르게 만드는 것이 지기(地氣), 즉 땅기운이다. 지기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빛과 바람, 그리고 물이다. 바람과 물은 지기를 운반하는 존재이며, 빛은 바람을 일으키고 물을 끊임없이 순환시키는 동력이다.

바람과 물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것이 산이다. 산에서 물길이 시작되고, 바람은 산을 타기도 하고, 산은 바람을 막기도 한다. 물은 산과 함께 흐르기도 하고 산에 막혀 멈추기도 한다. 산과 물의 배치와 모양은 지기의 흐름과 분포를 달라지게 한다.

'한반도 대운하'라는 엄청난 주장에 대한 최초의 느낌은 황당함이었다. '반 섬나라, 반도인데 운하가 왜 필요한 거지?' 꼭 뱃길이 필요하다면 동, 서, 남해를 통해 어디든 갈 수 있고, 내륙에는 대단위 공업단지도 별로 없으니 배를 띄워 물건을 날라야 할 만큼 필요한 것도 아니다.

하지만 대운하 사업에 대한 반대가 4대강살리기 사업에도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두 가지 사업은 성격이 전혀 다르다. 나는 4대강 사업이 현 시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치료행위라고 믿는다.

말이 나온 김에 환경을 빙자해 반대를 일삼던 사람들에게도 한마디 하자. 동강댐? 지금 어찌 됐는지 아는가? 여름철



만 되면 삼류 유흥장에 쓰레기더미가 된다. 강물을 탄다고 사람도 여럿 희생됐다. 천성산과 북한산 터널은? 수년을 끌며 막대한 예산을 날렸지만 결국 개통됐고, 그것으로 생태계가 크게 훼손됐다는 소식도 들리지 않는다.

청계천 사업에는 필자도 반대했다. 그러나 지금 나는 후회한다. 내 반대는 심사숙고에서 나온 게 아니라 "당신 전공이 풍수니까 반대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기자들의 권고에 별 생각 없이 따랐을 뿐이다. 물론 청계천 복원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어둑한 곳에서 쥐 떼가 보행인을 놀라게 한다거나, 여름철이면 노숙자들이 많이 몰려든다거나 하는 것들이다.

부작용 무서워 치료 포기해선 안 돼

하지만 반대에도 윤리의식과 염치가 필요한 법이다. 환경운동을 폄하하자는 게 아니다. 운동을 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반도 대운하 주장을 옹호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풍수적으로든 상식적으로든 지금 우리의 강들은 죽어가고 있다. 풍수는, 아니 대부분의 민족은 자연을 어머니로 본다. '어머니인 땅', 이것이 풍수의 출발이다. 4대강살리기는 중태에 빠진 어머니를 치료하자는 것이다. 환경론자들의 주장은 병든 어머니를 방치하자는 데 지나지 않는다. 적극적으로 개입해 고쳐드려야 한다.

> **"4대강살리기는 중태에 빠진 어머니를 치료하자는 것이다. 환경론자들의 주장은 병든 어머니를 방치하자는 데 지나지 않는다. 적극적으로 개입해 고쳐드려야 한다."**

실제 성공 사례도 많다. 청계천이 그렇고 내가 사는 안양천이 그렇다. 어릴 때 살았고 지금도 큰댁이 있는 중랑천도, 가끔 가보는 양재천도 다 그런 사례다. '치료' 전에는 손가락을 담그는 것조차 꺼려지던 썩은 물이 이제는 왜가리와 물오리가 구역 싸움을 벌이는 곳으로 변했다. 당연히 물고기가 많아져서 나타난 현상이다.

지금 '어머니'인 땅은 중병을 앓고 있다. 치료해드려야 한다. 당연히 치료 과정에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다. 그런 부작용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풍수는 치료를 강하게 주장한다. 그래서 풍수는 치유(治癒)의 지리학이다. G

글 · 최창조(녹색대학 풍수풍류학전공 교수, 전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



동아D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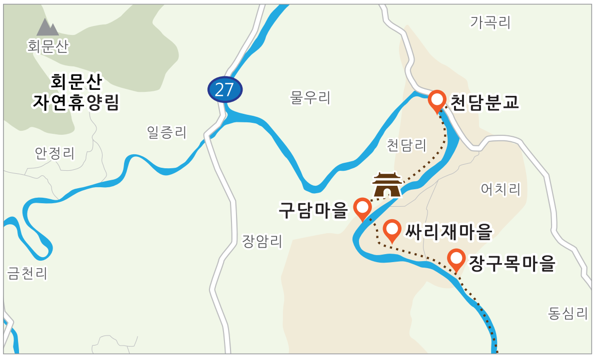
지나간 것에 대한 그리움일랑 저 물에 흘려보내세, 친구

겸손하게 낮은 곳으로만 흐르며 깊어져 남해 바다로 5백30리를 흐르는 섬진강은 전북 진안군 백운면 신암리의 데미샘에서 시작된다. 마이산을 바라보고 사선대(四仙臺)를 지나 섬진강댐을 거쳐 회문산 자락에 이르는 섬진강은 장구목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소박한 아름다움을 드러낸다.

섬진강이 휘돌아가는 지형에서 '물우리'란 이름이 비롯된 전북 임실의 물우리마을에서 바라본 회문산. 그 산중엔 바위로 된 천연의 문, 회문(回門)이 있다. 그래서 회문산(回門山)이다. 반석 같은 웅장한 바위들이 4킬로미터에 걸쳐 뻗어 있고, 우뚝 솟은 봉우리는 늘 구름에 잠겨 있다.

이 산 자락에 자리 잡은 임실 덕치초등학교에서 김용택 시인이 오랫동안 섬진강을 배경으로 시를 썼다. 흐르는 강물을 따라 조금 내려가면 느티나무가 서 있는 마을이 나오는데 이곳이 김용택 시인의 고향인 진메마을이다.

"저 강가에 얼마나 고기가 많던지 고기 반 물 반 그랬어. 어머니가 '용택아, 다슬기 잡아 가지고 올 텡게, 불 때고 있어라' 하고 나가신 뒤 불을 때고 있으면 금방 가서 한 바가지 잡아가지고 오는디… 바가지만 가지고 가서 손으로 이렇게 더듬으면 한 주먹 되고, 이렇게 하면 또 한 주먹 되고… 그래서 금방 한 바가지를 잡아 가지고 왔어."



이제 그런 낭만은 이 강가에서 사라진 지 오래다. 시인도 보이지 않고, 시인의 어머니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언젠가 내게 들려주던 목소리만 강물 소리에 섞여 들린다.

"가문 섬진강을 따라가면 보라/ 퍼가도 퍼가도 전라도 실핏줄 같은/ 개울물들이 끊기지 않고 모여 흐르며/ 해 저물면 저무는 강변에/ 쌀밥 같은 토끼풀꽃, 숯불 같은 자운영꽃 머리에 이어주며…."

문득 지나간 것에 대한 그리움이 물결쳐 온다. 그리운 추억 하나씩 안 가지고 사는 사람 어디 있으랴. 그래서 '모든 것은 일순간에 지나가고 지나간 것은 다시 그리워진다'고 러시아 시인 푸슈킨은 말하지 않았던가.

푸르디푸른 저 물빛 속으로 강은 얼마나 깊을까. 강가에는 아직 만든 지 오래지 않은 배 한 척 매어 있고 흰 줄이 강 건너





◀ 전북 순창군 회령마을을 감아도는 섬진강 줄기. ▶ 임실군 영계면 장구목에서 볼 수 있는 요강바위.



섬진강 상류 장구목에 있는 기이한 모양의 바위 군상들. 마치 신이 빚은 거대한 조형물 같아 보인다.

나무에 걸려 있다. 진메마을에서 천담리로 가는 길, 고요하고 한적한 이 길의 주인은 다슬기국처럼 푸른 강물과 연둣빛 나무와 풀이다.

천내리와 구담리를 합해 천담리로 이름이 바뀐 이곳엔 활처럼 휘어 흐르고 못(潭)처럼 깊은 소(沼)가 많다 하여 천담(川潭)이라고 부른다. 천담리에서 영화 〈아름다운 시절〉이 촬영된 안다물(구담마을)은 그리 멀지 않다. 구담마을, 언제나 조용하다. 빈집이 여러 채 그림처럼 남아 있을 뿐이다.

흐흐흐… 볼수록 기묘한 '요강바위'

가고 온다. 우주 순환의 섭리를 이곳 구담마을의 빈집에서 느낀다. 느티나무 숲 우거진 구담마을 동산에서 바라본 섬진강은 마치 활처럼 휘감아 돈다. 섬진강 물줄기 중에서 가장 빼어난 정경 중 한 곳인 전북 순창의 회룡마을로 건너가는 강길 역시 징검다리다. 한 발 한 발 걸어가다 바위에 주저앉아 물의 소리를 듣는다. 동행자 중 한 사람이 말을 건넨다.

"좋은 물소리는 또랑(작은 개울)에서 흐르는 소리가 최고예요. 우렁차게 흐르는 물소리는 맑지 못해요."

그렇다. 댓잎에서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물소리나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물 소리를 한밤에 듣고 있으면 정신이 싸아…해지면서 해맑아지지 않던가. 물소리에 젖은 채 한 발, 한 발 걷다가 보니 회룡마을에 이르고, 천천히 흐르는 강물을 따라가자 장구목이다.

임실의 영계면에 속한 장구목은 영계면에서 가장 안쪽이어서 '안영계' 또는 '내령'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장군목' '장구목' '장군항' '물항'으로도 불린다. 임실의 기산(3백45미터)과 순창의 용골산(6백45미터) 사이 산자락 밑에 위치한 장구목 부근엔 '아름답다' '좋다'라는 경탄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있다. 저마다의 진경을 자랑하는 수많은 바위들이 강을 수놓은 가운데 보면 볼수록 기기묘묘한 바위가 요강바위다. 큰 마을 사람들이 저녁 내내 '일을 봐도' 채워질 것 같지 않은 이 요강바위는 한때 잃어버렸다 다시 제자리에 놓여 있다.

장구목을 지나자 동계면의 구미리에 이른다. 구미리의 강경마을을 지나며 강물은 깊어져 소리를 잃는다. 강의 물이 맑아 소녀의 눈동자 같고 은어가 많이 살았다는 적성강(순창군 적성면을 흐르는 구간)이다. 흐름도 없이 흐르는 섬진강을 바라보니 공자가 시냇가에서 설파한 한마디가 떠오른다.

"가는 것이 저 물과 같도다! 밤낮을 그치지 않는구나."

그래, 저 물처럼 우리도 시간의 바다를 향해 흘러가 어느 날 문득 망망대해인 큰 바다에 닿을 수 있을까. G

글과 사진 · 신정일(사단법인 우리땅걷기 이사장)

자전거 전용 주차장으로 도난·분실 걱정 끝!

교통난이 가중되고 레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전거 수요가 부쩍 늘고 있다. 2012년까지 전체 교통수단 중 자전거의 수송 분담률은 5퍼센트에 이를 전망. 이에 따라 급속한 수요 증가에 대비한 자전거 이용 기반과 제도 개선이 과제로 떠올랐다. 특히 자전거 전용 주차장 확보는 시급한 현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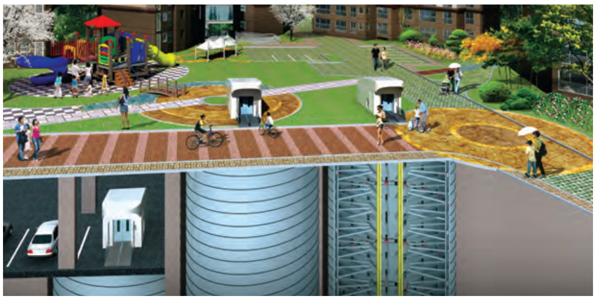
지난해 전국 자전거 보급 대수는 약 7백만 대. 국민 6명당 1대 꼴(보급률 16.7퍼센트)이다. 2008년 보급률이 14.4퍼센트였음을 감안하면 짧은 기간 자전거 수요는 상당히 증가한 셈. 정부는 아예 2017년 보급률을 50퍼센트까지 끌어올릴 계획을 갖고 있다.

당연히 자전거 전용 주차장의 수요도 크게 늘어날 전망. 이미 각 지역자치단체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강북구 수유역 등 3개 지하철역에 자전거 주차 건물을 설치한 서울시는 2012년까지 추가로 16개의 전용 주차장을 조성한다.

현대엘리베이터



바이크인프라



▲▲ 자전거 주차장 입출고 시스템. ▲ 지하매립형 자전거 주차장 조감도.

대구시도 대구역 북쪽 광장에 자전거 전용 지하 주차장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대구 지하철 2호선 동촌역 입구에도 자전거 1백49대를 세워둘 수 있는 전용 주차장이 들어선다. 동촌역 주차장을 설치한 대구 동구청은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공모한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 시책 사업자로 선정돼 정부의 지원을 받았다.

교통카드로 입출고… 10~20초면 완료

그러나 자전거 보급 대수에 비해 전용 주차장 시설은 아직 턱없이 부족한 형편.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9일 '2010 자전거 정책 추진계획'을 내놓고 백화점, 건물 등 대형 시설물에 자전거 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네덜란드, 덴마크 등 '자전거 천국'이라 불리는 나라에선 자전거 주차장 수가 자동차 주차장 수와 맞먹는다. 자전거 수송 분담률이 40퍼센트에 이를 정도인 네덜란드가 대표적. 수도 암스테르담은 물론 전국의 주요 역마다 자전거 주차장을 쉽게 볼 수 있다. 암스테르담 중앙역엔 최대 1만 대의 자전거를 수용할 수 있는 3층짜리 전용 주차장 건물이 들어섰다. 수송 분담률이 20퍼센트 대에 이르는 덴마크 역시 국회 건물 안에 의원 전용 자전거 주차장이 있을 정도로 관심이 높다.

일본(수송 분담률 14퍼센트)도 1980년 11월 '자전거의 안전 이용 및 자전거 주차장 정비에 관한 법률'을 마련해 폭발적인 자전거 수요 증가에 대응해왔다. 웬만한 전철역과 대형 건물엔 자전거 주차장 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돼 있다.

일본 도쿄 에도가와구 가사이역은 최대 9천4백 대의 자전거를 수용할 수 있는 전용 주차장을 갖췄다. 자전거 수용 능력이 커 오히려 입출고 시간이 지체될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23초 만에 입출고가 가능하다.

이렇듯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국내에서도 자전거 인프라 개발 및 설치 전문 업체들의 개발 붐이 일어나고 있다. 승강기 전문 업체인 현대엘리베이터는 자체 기술을 기반으로 지난해 5월 국내 최초로 자전거 2백 대를 자동으로 입출고할 수 있는 전용 주차장 모델을 출시했다.

개발 모델은 승강회전식과 승강슬라이드식 두 가지. 승강회전식은 회전 승·하강을 하는 리프트를 이용해 자전거를 원형으로 격납하는 방식이다. 직경 약 7.5미터의 대지만 있으면 지하 또는 지상으로 설비를 갖출 수 있다. 10~20초 이내에 신속한 입출고가 가능한 것이 장점.

승강슬라이드식은 자동차 주차 설비를 응용해 대규모의 자전거를 신속하게 입출고할 수 있는 독자 모델이다. 물류자동화 설비의 하나인 스태커크레인(Stacker Crane)을 적용했다. 지하와 지상에 모두 설치할 수 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올해 1월 서울 영등포역과 대구역(지하), 광주역(지상) 등 3곳에 설치되는 자전거 주차 설비를 수주했다. 지하철에서 사용하는 교통카드로 입출고가 가능하며, 카드를 분실했어도 영상감시 시스템에 저장된 정보를 바탕으로 자전거를 출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다.

바이크인프라도 자전거 전용 주차장 설치 경쟁에 합류했다. 바이크인프라가 개발한 주차장 시스템 역시 지하철, 아파트, 상가 지역, 공공기관, 대학 등 장소에 따라 지하매립형과 지상타워형으로 개발됐다.

지하매립형은 지하철 등의 종합 환승역사, 아파트, 백화점 및 쇼핑센터 등에 지상공간 면적이 좁을 경우 적합한 모델이다. 방식은 원형 혹은 적재식. 기존에 활용되던 체인 방식의 주차장은 공간 효율(70제곱미터에 8대 주차 가능)이 떨어지고 반입과 반출 속도도 느린 단점이 있었다.

공간 활용도 뛰어나… 샤워시설 등 옵션 설치도 가능

이에 비해 원형 방식은 지하에 세워진 원통형 기둥을 중심으로 3백60도 방향으로 거치 공간을 층으로 설치한 방식이다. 40제곱미터당 15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어 공간 효율성이 매우 높다. 적재식도 40제곱미터당 14대를 세울 수 있어 지상 주차와는 공간 활용 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다. 아파트의 경우엔 기존 주차장과 연계해 설치할 수도 있다.

지상 주차의 경우엔 주차면적을 계산할 때 대당 주차 간격에 자전거의 길이, 'In(반입)-Out(반출)' 공간, 핸들링 공간과 여유율까지 고려해야 한다. 토지확보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는 셈. 반면 바이크인프라가 개발한 지하매립형 주차장은 자전거 입출고 입구공간으로 10제곱미터(2.5미터×4미터)만 있으면 된다.


바이크인프라

건물과 건물 사이 잉여공간에 만들어진 지상타워형 자전거 주차장 조감도.

바이크인프라의 지상타워형 주차장은 빌딩이 밀집된 도심지역에서 일부 잉여공간이 있거나 강변 등 지대가 낮은 지역에 적합한 모델이다. 원형과 적재식 활용이 가능하며, 샤워시설과 자전거 세차시설 등 각종 옵션 설치가 가능하다.

주차 시스템의 자전거 입출고 방식은 자동차 자동 주차장과 유사하다. 사용자가 자전거를 주차 위치에 대고 입출고 시스템에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정해진 위치에 자동으로 주차된다. 이 과정에서 자전거를 고정하는 장치의 센서는 자전거와 바퀴의 크기에 맞게 힘을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행여 에러가 나더라도 이를 체크해 자동으로 보정하는 기능도 갖췄다.

이 회사는 이 기술을 포함해 무인 주차장과 관련한 5개 기술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론칭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본격적인 보급에 나설 계획이다.

바이크인프라의 심송학 대표는 "무인 자전거 주차 시스템의 자전거 입출고 시간은 대당 20초 안팎이라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용 능력도 30대에서 2백 대까지 조절할 수 있다"며 "장비 고장률도 매우 낮아 앞으로 자전거 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툴(Tool)로 기능하면서 활발한 보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G

글 · 유재영 기자

뉴시스



‘존재의 이유’ 알고 싶었기에 그는 결심했다

올해도 프로야구 열기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이제 팬들은 그저 던지고 치고 달리는 데서만 재미를 찾지 않는다. 야구에서 인생을 읽으려는지, 야구장 안팎의 갖가지 시시콜콜한 일에도 관심이 가득하다. 야구 전문기자가 5회에 걸쳐 이들 야구팬이 궁금해하는 뒷이야기를 소개한다. 그 첫 순서는 KIA 장성호의 트레이드 스토리.

독수리 발톱으로 호랑이를 잡아볼까. 한화 유니폼을 입은 장성호의 호쾌한 타격.

‘스나이퍼’ 장성호가 KIA 타이거즈를 떠나 한화에 둥지를 틀었다.

지난 1996년 해태에 고졸 루키로 입단해 15년 동안 주전으로 활약하며 9년 연속 타율 3할을 기록했고, 통산 1천7백41 안타로 2천 안타에 도전하는 몇 안 되는 타자, 장성호. 그는 고향은 서울이지만 광주에서 성공했다. 광주에 터를 잡고 광주 여자와 결혼했고 아이도 낳았다. 먹고살 만한 재산도 있다. 부러울 게 없는 그가 지난 1월 트레이드를 자청해 15년 동안 정든 광주를 떠났다. 그렇다면 장성호는 왜 KIA를 떠나려고 했을까.

장성호 문제가 촉발된 것은 2009시즌을 마친 뒤 FA 시장에서였다. 두 번째 FA(자유계약) 권리를 얻은 장성호는 예상을 깨고 돌연 FA를 선언하며 타 구단 이적을 추진했다. 성적이 신통치 않은 FA 자격 취득선수들은 대개 FA 선언을 하지

않고 1년 재계약을 통해 다시 상품성을 높이는 쪽을 택한다. 30대 중반에 들었고 지난 4년간 명성에 비해 다소 성적이 부진했던 장성호는 당연 재계약이 유력해 보였다.

하지만 그는 반대의 길을 택했다. KIA가 자신의 존재감을 무시하고 나선 게 가장 큰 이유다. 자존심이 상한 것이다. 그는 조범현 감독이나 구단이 자신을 주전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여러 통로를 통해 알아봤다. 결국 자신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결론이 섰고, 마침 'FA 계약을 할 수 없다'는 구단의 통보를 받자 FA를 선언하며 맞불을 놓았다. KIA를 떠나겠다는 선언적 의미였다.

그러나 FA 교섭기간 중 타 구단의 '입질'은 없었다. 한화가 눈독을 들이긴 했지만 20억원이 넘는 높은 보상금 때문에 포기했다. 울며 겨자 먹기로 1월 중순 FA 계약 마감 직전 KIA와 3억원이 삭감된 2억5천만원에 1년 재계약 사인을 한 장성호는 계약서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 팀에 트레이드를 요구했다.

이별의 조짐은 이미 2007년부터 잉태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KIA는 메이저리거 최희섭 영입을 추진했고 5월 입단을 성사시켰다. 10년 넘게 1루를 지켜온 장성호에게는 위기였다. 하지만 최희섭이 슬럼프에 빠지는 통에 얼마간은 자리를 보전할 수 있었다.

그러다 2007시즌 KIA가 꼴찌로 추락하면서 서정환 감독과 정재공 단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고, 조범현 감독과 김조호 단장 체제가 새롭게 들어섰다. 김 단장은 조 감독에게 일절 선수기용 등에 관여하지 않고 감독 권한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했다. 조 감독에게 전권이 주어진 것이다.

"떠나면 좋을 줄 알았는데 무덤덤하다"

이미 2007년 시즌 중반 배터리 코치로 부임해 KIA 내부를 유심히 관찰해온 조 감독은 KIA에 세대교체가 절실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선수들의 의식이나 훈련 태도에도 변화가 필요했다. 그래도 조 감독의 충암고 후배인 장성호는 2008시즌 전 선수단 상조회에서 주장으로 뽑혀 새로운 팀 체제 적응에 문제가 없어 보였다. 하지만 그해 시즌을 치르면서 조 감독의 신뢰는 조금씩 무너져갔다. 장성호는 잦은 부상에 시달렸다. 주장으로서 팀을 이끌 것으로 기대를 받았지만 몸이 아픈 장성호가 소화하기는 어려웠다. 결국 조 감독은 9월 13일 추석 연휴 첫날 두산과의 잠실 경기를 앞두고 장성호를 2군으로 내려보냈다. 이유는 부상이었다. 장성호는 이후 1군 복귀 없이 시즌을 마쳤고 주장 완장을 내려놓았다. 대개 주장이 2년 정도를 하는데 이례적인 일이었다.



"한화에서 새출발하렵니다." 15년 정든 KIA 유니폼을 벗고 한화로 이적한 장성호(오른쪽)가 한대화 감독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이런 장성호의 입지를 더욱 불안하게 한 것은 최희섭의 부활이었다. 최희섭은 2008년 최악의 시즌을 보낸 뒤 미친 듯이 등산에 매달려 육체개조에 성공한다. 그래도 조 감독은 장성호와의 '끈'을 놓지 않았다. 2009시즌 두산과의 개막전에 선발 1루수로 출전시켰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최희섭이 붙박이 4번 타자 겸 1루수로 기용되면서 장성호는 좌익수, 지명타자 등을 전전하다 2군으로 강등됐다. 2009시즌 초반 3승1무6패의 초라한 팀 분위기에서 맞은 4월16일, 3연전 두 번째 경기에서 0-1 완봉패를 당했음에도 그가 다음 날 새벽까지 고우석과 함께 심야 포장마차에 있던 것이 알려지면서 조 감독을 뿔나게 만들었다.

장성호는 12일 만에 1군에 복귀했지만 나지완, 최희섭, 김상현이 펄펄 나는 동안 벤치에서 그들을 구경하는 신세가 되어버렸다. 이 같은 팀 내 위상변화가 트레이드의 불씨가 됐다. 장성호의 트레이드는 그가 KIA에서 뛴 그 오랜 시간만큼 팬들을 안타깝게 했다. 두산, 넥센, 한화 세 구단과 협상창구에서 오간 선수들만 해도 20명이 넘었다. 장성호는 1군행을 거부하며 트레이드를 기다렸지만 번번이 무산되자 은퇴까지 생각할 만큼 초조한 시간을 보냈다.

트레이드 성사 소식을 접한 장성호는 "KIA를 떠나면 좋을 것 같았는데 무덤덤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만큼 자신도 KIA에 대한 애정과 정이 들었기 때문이다.

고졸 루키로 입단한 그는 '코끼리' 김응룡 감독의 애정 속에서 김성한과 김종모 타격코치의 혹독한 조련을 참고 견디며 3할 타자가 됐다. 고교시절 야구에 흥미를 잃고 숱한 방황을 겪었지만 프로에서 멋지게 성공했다. 그러나 친정팀과의 마지막 궁합은 맞지 않았다. 이제 더 이상 무등 야구장에선 스나이퍼를 향한 응원가를 들을 수 없게 됐다. G

글 · 이선호(OSEN 야구부장)

冊 한기호 소장이 추천하는 〈책으로 크는 아이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선물



남아프리카에 서식하는 영양의 한 종류인 '스프링벅'은 무리 가운데 한 마리만 뛰기 시작하면 풀을 뜯어먹으려던 원래의 목적은 잊고 무작정 함께 달린다. 그러다 모두 벼랑에 떨어져 죽고 만다.

요즘 우리 아이들도 이와 비슷한 형국이지 않을까. 인생의 꿈을 좇기보다는 대학입시라는 목표 아래 맹목적인 학구열을 불태운다. 빠듯하게 짜인 시간표 속에서 아이들은 스스로 뒤돌아보며 진정한 꿈을 찾아 키우기가 쉽지 않다.

한기호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소장은 이런 문제의 해답이 독서에 있다고 말한다.

"책은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면서 '나는 누구이며 삶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게끔 도와줍니다. 앞으로 더 치열한 경쟁사회를 살아가야 할 우리 아이들에게 책은 꿈을 찾아가는 길이고, 미래를 사는 힘이죠."


한기호 소장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책은 꿈을 찾아가는 길이고 미래를 사는 힘"이라고 말했다.

한 소장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독서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올바른 독서 습관을 갖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한다. 그는 중학교 교사 백화현 씨가 펴낸 〈책으로 크는 아이들〉을 읽으면서 다시 한 번 독서에서 '교육의 희망'을 발견했다.

"중학교 국어선생님인 저자가 자신의 아들과 친구들을 모아 7년 동안 꾸린 가정독서모임의 이야기를 담았어요. 큰아들을 중심으로 한 1기가 4년간 지속됐고, 지금은 작은아들을 중심으로 2기가 운영되고 있어요."

백 씨의 큰아들은 병치레가 잦았다. 중학교에 들어간 뒤에는 성적에서 오는 열등감에 괴로워했다. 백 씨는 그런 아들에게 책을 읽히기로 결심했다. 그림책, 동화책에서 시작된 모임은 동서양의 고전문학과 철학, 종교 등 여러 영역의 책들로 확장됐다.

"좋은 책 한 권으로 더 멋진 삶 살 수 있어"

다산 정약용의 흔적을 만나기 위해 강진과 해남으로 여행을 떠났고, 방학 때면 아이들 스스로 관심 있는 작가에 대한 논문을 썼다. 아이들은 책을 읽으면서 놀랍게 변화했다. 1기 아이들은 모두 자기가 원하던 학과에 합격했고, 2기 아이들은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책들을 읽으며 꿈을 찾아가고 있다.

"이 아이들이 자신감을 갖게 된 건 독서를 통해 정보에 접근하는 능력과 글 쓰는 능력을 길렀기 때문입니다. 이런 근본적인 능력만 갖춘다면 어느 자리에서라도 잘해낼 수 있다고 봐요."

한 소장은 자신이 가장 행복했을 때를 떠올렸다.

"큰딸이 어렸을 적 다른 무엇보다 책을 읽고 싶다며 조르던 모습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어요. 인간이 지닌 상상력과 지식으로 가득 채운 책 한 권을 만난다면 아이들은 누구보다 훌륭하고 멋진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G

글 · 김민지 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책으로 크는 아이들〉 백화현 지음 / 우리교육 펴냄 · 1만3천원

희망

글과 그림·최영순



희망은 절대로 당신을 버리지 않는다. 다만 당신이 희망을 버릴 뿐이지.
– 리처드 브리크너(미국 소설가)

오페라와 함께 초여름 더위 탈출

오페라 〈아이다〉

일시 6월 16~19일 오후 7시 40분
장소 서울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
관람료 VVIP석 25만원, VIP석 20만원, R석 15만원, S석 10만원, A석 5만원, B석 3만원,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50퍼센트 할인(1~3급 동반 1인까지)
문의 1544-9373 www.sac.or.kr



오페라의 대중화와 활성화를 위해 올해 처음 마련된 '대한민국 오페라 페스티벌'이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열린다. 오랜 준비과정을 거쳐 이번 축제 무대에 오르는 작품은 글로리아오페라단의 〈리골레토〉, 솔오페라단의 〈아이다〉, 서울오페라앙상블의 〈라트라비아타〉, 베세토오페라단의 〈카르멘〉 등이다. 전문가들은 이 가운데서도 특히 주목해야 할 작품으로 〈아이다〉를 꼽는다.

〈아이다〉는 1869년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 개통을 축하하기 위해 만들어진 작품. 이집트 국왕이 당시 최고의 오페라 작곡가이던 주세페 베르디에게 작품을 의뢰했고, 베르디는 처음에는 이를 거절했지만 결국 작품의 줄거리에 반해 수락했다고 한다. 고대 이집트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극적인 이야기와 대형 오케스트라의 화려한 선율, 출연진의 대규모 합창으로 오페라의 정수이자 진정한 걸작으로 평가돼왔다.

이번 공연에는 이름만으로도 신뢰감을 주는 성악가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놀라운 가창력과 풍부한 성량으로 유럽 무대를 대표하는 리릭 스핀토 소프라노 모니아 마세티, 미성의 테너 마리오 말라니니, 메조소프라노 라우라 브리올리 등이 그들. 한국의 성악가로는 이탈리아 라스칼라 극장에 한국인 최초로 데뷔한 테너 이정원이 이집트 장군 라다메스, 한국 최고의 바리토너로 불리는 고성현이 아모나스로 역으로 무대에 오른다.

무대 디자인을 맡은 국립오페라단의 임일진 미술감독은 "4막 7장으로 구성된 이번 공연은 고대 이집트 왕조의 웅장하고 화려한 스케일을 재현해 그 어떤 오페라보다 볼거리가 많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G

글 · 김지영 기자

국악 〈젊은 예인을 위한 협주곡의 밤〉

일시 6월 17~19일 오후 7시 30분
장소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관람료 1층 2만원, 2층 1만5천원,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동반 1인까지 50퍼센트 할인
문의 02-2280-4114 www.ntok.go.kr



국립국악관현악단이 재능 있는 차세대 국악인을 발굴하고자 매년 여는 기획 연주회. 이번 공연에서는 엄격한 오디션을 거쳐 선발된 13명의 연주자가 가야금 협주곡 '호호굿'과 '찬기파랑가'를 비롯해 해금 협주곡 '활의 노래', 아쟁 협주곡 '비', 태평소 협주곡 '검은 평화', 모듬북 협주곡 '타' 등을 선보인다. 지휘는 국립국악관현악단 부지휘자인 원영석 씨가 맡는다.

콘서트 〈조재혁 피아노 독주회〉

일시 6월 22일 오후 7시 30분
장소 호암아트홀
관람료 VIP석 7만원, R석 5만원, S석 3만원, 학생석 2만원,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50퍼센트 할인
문의 02-706-1481~2 www.hoamarthall.org



탁월한 곡 해석과 명민한 연주로 호평받아온 재미 피아니스트 조재혁이 내년에 탄생 2백 주년을 맞는 리스트의 명곡들을 가지고 관객을 만난다. 그가 이번에 준비한 레퍼토리는 종소리를 영롱하게 묘사한 '라캄파넬라'와 감미로운 선율로 가슴을 울리는 '사랑의 꿈', 리스트가 단테의 〈신곡〉을 읽고 작곡한 '단테를 읽고' 등이다. 지난해까지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쳐온 그는 지난 3월 성신여대 교수로 초빙돼 국내 애호가를 위한 연주회를 이어나가고 있다.


2010 KOREAN GRAND PRIX
전라남도
JeollaNam-do
드디어 대한민국이다!
2010년 10월 전남 영암에서 세계 최고의 레이스가 펼쳐진다
2010 포뮬러원 코리아 그랑프리
■ 일시 : 2010. 10. 22(금)~24(일)
■ 장소 : 전남 영암 F1경주장
■ 입장권 발매
* 대회 홈페이지 : www.koreangp.kr
* 인터파크 : www.interpark.co.kr
* 티켓링크 : ticketlink.co.kr
2010 FORMULA 1™
KOREAN GRAND PRIX

대한민국에 너의 끼를 입혀봐!



2010 대학생 광고 공모전

| 참가대상 |

2년제 이상 대학(원)생 (휴학생 가능), 개인 및 3인 이내 팀 응모가능

| 공모부문 |

TV 스토리보드, 인쇄광고, UCC (3개 부문)

| 공모주제 |

① 기부 . 나눔 문화
: 서로 돕고 사랑과 배려가 넘쳐나는 우리사회 기부와 나눔문화 정착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② 선진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4대 실천과제
: (끼어들기, 꼬리물기, 갓길운행, 음주운전) 안하기, 사이버 예절 지키기,
공공장소 휴대전화 사용시 작은 목소리로 하기, 깨끗한 거리와 간판 만들기 등
우리나라의 품격을 높이기 위한 4대 실천과제를 통해 국민 동참분위기 조성

| 공모일정 |

작품접수 : 2010년 8월 2일 (월) ~ 2010년 8월 13일 (금)
수상작 발표 : 2010년 9월 7일 (화) 예정
시상식 : 2010년 9월 14일 (화) 예정

| 접수방법 |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

| 시상내역 |

대　　상 (1편) : 상금500만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최우수상 (1편) : 상금300만원,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상
우 수 상 (부문별 각2편) : 상금100만원,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상
장 려 상 (부문별 각3편) : 상금 50만원,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상

| 문 의 | 공모전 운영사무국 · 씽굿 ☎ 02-334-9044
문화체육관광부 · 뉴미디어홍보과 ☎ 02-3704-9797

| 자세한 내용은 www.mcst-ad.co.kr 참조하세요 |

주 최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후 원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